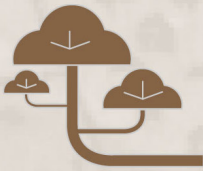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검단편



발간사

안녕하세요. 인천서구문화원장 정군섭입니다.

검단지역이 1995년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된 이후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구청 검단출장소 설치와 함께 '검단동'이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의 분동을 거치며 검단의 인구와 생활권, 도시 기반은 빠르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개발과 정주 여건의 변화는 검단을 인천의 중요한 생활 중심지로 성장시켰고, 2026년 '검단구' 출범을 앞둔 지금, 검단은 새로운 행정 체계와 지역 정체성을 함께 준비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역이 어떤 삶을 이어 왔는지, 어떤 가치와 기억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기록이자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도시가 새로워질수록, 오래된 자리에서 이어져 온 이름과 풍경, 사람들의 흔적을 함께 기억할 때 지역의 미래 또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서구문화원에서는 2024년에 발간한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서곶편』에 이어,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검단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인천 서구 곳곳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동별로 정리·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유산 전환과 분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나아가 미래세대가 보존해야 할 지역유산을 조사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검단편에서는 검단지역에 분포한 유형문화유산을 법정동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의 문화유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문화유산의 위치와 현황,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현장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다섯 점의 문화유산은 물론, 검단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유산도 함께 수록하여 보존해야 할 검단 문화유산의 가치를 폭넓게 담고자 하였습니다.

검단에는 선사·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개발과 변화 속에서 그 존재가 잊히거나, 일상에 너무 가까워 오히려 의미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발간물이 검단 문화유산을 어떠한 장소나 유물로만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연결된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과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자료가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위해 조사와 자료 정리, 원고 작성과 편집 과정에 힘써 주신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사업의 시작과 끝까지 도움 주신 강덕우, 강옥엽 자문위원님과 검단 문화유산 보존에 꾸준히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조승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검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서구문화원은 앞으로도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며, 평범한 서구의 하루가 가치있는 서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러두기

- 본 연구자료는 2024년에 시작된 2개년 계획으로 서구의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편에서는 검토의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을 법정동별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 문화유산의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고 지번을 병기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는 지번만 기재하였으며, 지번이 변경된 경우 구 지번을 병기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는 사진 차례표에 기입하였습니다. 출처가 없는 경우는 인천서구문화원 자체 촬영입니다.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간에 진행된 사업으로 자연유산이 문화유산으로 표기되는 등 용어 표기에 혼용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검단편

목차

I. 검단의 연혁과 동명유래	1. 검단의 연혁	13
	2. 법정동명 유래	17

II. 마전동	1. 마전동의 연혁과 지명	27
	2. 마전동의 문화유산	32
	1) 한백륜 묘역	32
	2) 망해사지(望海寺址)	34
	3) 능내마을 굴참나무 ①·②	36
	4)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소	36
	5) 가현산 옥돌 광산터	40
	6)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2구역	41
7) 마전동 유물산포지	42	

III. 금곡동	1. 금곡동의 연혁과 지명	47
	2. 금곡동의 문화유산	49
	1) 약천사지	50
	2) 좌동 토성터	50
	3) 묘각사 느티나무 ①	52
	4) 묘각사 느티나무 ②	53
5) 묘각사 느티나무 ③	54	
6)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1구역	54	

IV. 오류동	1. 오류동의 연혁과 지명	59
	2. 오류동의 문화유산	62
	1) 백석산 봉수대 터	63
	2) 백석산 바위	65
	3) 오류동 느티나무	67
	4) 오류동 당산 소나무	69

V. 왕길동	1. 왕길동의 연혁과 지명	75
	2. 왕길동의 문화유산	79
	1) 안동포 터	79
	2) 왕길동 염전 터	82
	3) 안동포 당제 향나무·소나무	84

VI. 당하동	1. 당하동의 연혁과 지명	91
	2. 당하동의 문화유산	95
	1) 고성이씨 묘역	95
	2) 광명마을 느티나무	97
	3) 매밭 느티나무	100
	4) 죽저마을 측백나무	101
	5) 죽저마을 향나무	102

VII. 원당동	1. 원당동의 연혁과 지명	107
	2. 원당동의 문화유산	109
	1) 김안정 묘·출토 묘비	110
	2) 의령남씨 종중묘역	111
	3) 원당동 유적	115

Ⅷ. 불로동	1. 불로동의 연혁과 지명	123
	2. 불로동의 문화유산	125
	1) 불로동 근린 공원(8호)내 고인돌	125
	2) 마산마을 은행나무	128
	3) 불로동 당산 음나무	130
	4) 불로동 당산 참나무	131
	5) 아랫마을 느티나무	131
	6) 불로동 유물산포지	132

Ⅸ. 대곡동	1. 대곡동의 연혁과 지명	139
	2. 대곡동의 문화유산	142
	1) 검단 대곡동 고인돌군	142
	2)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145
	3) 평산신씨 종중묘역	147
	4)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⑥	149
	5)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③	151
	6) 전주류씨 묘역	152
	7) 밀양당씨 정열비	152
	8) 김중환의 묘	154
	9) 두밀마을 은행나무	155
	10) 두밀마을 느티나무	155
	11) 두밀마을 팔배나무	156
	12) 두밀마을 향나무	157
	13) 황곡 느티나무	157
	14)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	158
	15) 황곡 측백나무	159
	16) 황곡 감지정(坎止亭) 터	159
	17) 하동정씨 사당	161

I



검단의 연혁과 동명유래



文
化
史
遺
産



I. 검단의 연혁과 법정동명 유래

1. 검단의 연혁

검단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1995년 서구에 편입된 곳이다. 따라서 1995년 이전까지 검단의 역사는 김포의 역사였다. 김포는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때 김포현으로 이름을 고쳐서 고려시대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¹⁾ 고구려시대에는 그 소속을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이후 9주 5소경 제도를 시행하면서 김포는 한주(漢州)에 소속된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현종(顯宗) 9년(1018)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樹州)의 속현(屬縣)이 되었고,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신종(神宗) 원년(1198)에 현령관을 두었다고 한다.²⁾ 그 후 조선시대 태종 14년(1414) 8월에 양천현을 김포현에 합쳐서 금양현(金陽縣)이라고 불렀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양천을 김포에서 분리하여 금천(衿川)에 합치고 김포현을 없애서 부평에 붙였다가 태종 16년 7월에 다시 현령을 두고 김포현을 부활시킨다.³⁾

검단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성종 때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포현 토산(土産)에 “황옥(黃玉) 현 서쪽 검단리(儉丹里) 애갈산(艾葛山)에서 산출된다.”라는 기록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검단이 김포의 영역에 속한 점을 생각해보면,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검단’이라는 이름은 예부터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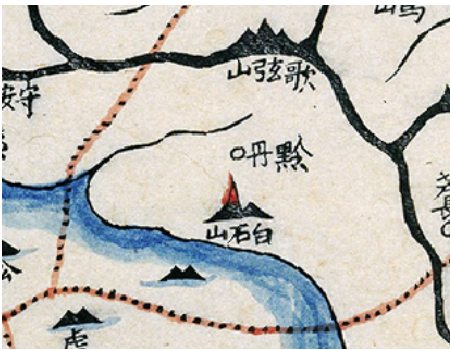
1)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 장제군. “김포현(金浦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검포현(黔浦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金浦縣, 本高句麗黔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2)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안남도호부 수주. “김포현(金浦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검포현(黔浦縣)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장제군(長堤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현종(顯宗) 9년(1018)에 그대로 <안남도호부 수주>에 소속시켰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신종(神宗) 원년(1198)에 왕의 태(胎)를 현의 땅에 묻게 되어, 승격시켜 현령관(縣令官)이 되었다.(金浦縣本高句麗黔浦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長堤郡領縣. 顯宗九年, 仍屬. 明宗二年, 置監務. 神宗元年, 以王胎藏於縣地, 陞爲縣令官.)”

3)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 부평 도호부 김포현. “본조 태종(太宗)갑오 8월에 양천현(陽川縣)을 혁파하여 본현(本縣)에 합치고, 금양현(金陽縣)이라 하다가, 10월에 다시 양천을 금천(衿川)에 합치고, 김포현은 혁파하여 부평부(富平府)에 붙이었다가, 병신 7월에 다시 현령을 두었다.(本朝太宗甲午八月, 革陽川縣并本縣, 號爲金陽縣, 十月, 更以陽川并於衿川, 革金浦縣, 屬富平府, 丙申七月, 復置縣令.)”

그러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 이미 면리지(面里制)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검단리가 소속된 면(面)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면리제가 정착된 것이 조선 후기인 17세기였고 조선 전기에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면(面)·촌(村)·사(社)·리(里)·동(洞)이 상하관계를 이루거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등 명칭이 혼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⁵⁾ 따라서 조선 초기 검단은 경기도 김포현에 속한 리(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리(里)로 등장하던 검단은 조선 후기 기록에서부터 면(面)으로 승격되어



〈지도 1〉 『대동여지도』의 검단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가 1789년(정조 13)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여 정리한 『호구총수(戶口總數)』인데 여기에는 검단면(黔丹面)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검단면으로 편입되는 마산면(馬山面), 노장면(蘆長面)도 보인다. 이렇게 변화된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1530년

(중종 25)과 1789년(정조 13) 사이에 검단리, 마산리, 노장리가 면으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⁶⁾ 하지만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수원진(水原鎭)에 “인조(仁祖) 때에 김포현에 장릉(章陵)을 옮겨 군으로 승격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전까지 현(縣)이었던 김포가 인조 때 군(郡)으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에 소

4)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호적(戶籍) “수도 밖에는 5가구를 1통(統)으로 묶고 통주(統主)를 둔다. 수도 밖에는 5통마다 리정(里正)을 두고, 각 1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둔다. 수도에는 각 1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 (京外, 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 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 京, 則每一坊有管領.)” 이 기록을 보면 면(面)은 보이지만 리(里)는 안보이고 리정(里正)만 보인다. 그래서 면(面)은 있어도 리(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5통마다 리정(里正)을 두고(則每五統有里正)”라는 구절을 5통을 1개의 리(里)로 묶고 리정(里正)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며, 몇 개의 리(里)를 1개의 면(面)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면리제가 시행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신편 한국사』 23, 143쪽).

5) 최봉수,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61쪽.

6)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112쪽.

속된 검단리(儉丹里)도 이 무렵 검단면(黔丹面)으로 승격된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렇게 정조 때 만들어진 『호구총수』에는 현재 검단에 속한 면(面)과 리(里)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산면(馬山面) : 서원리(鋤院里), 대곡리(大谷里), 불로리(不老里), 목지리(木枝里)
- 검단면(黔丹面) : 마전리(麻田里), 여래리(如來里), 신리(新里), 금곡리(金谷里), 고잔리(高盞里), 왕길리(王吉里), 속사곶리(束沙串里), 안동포리(安東浦里), 좌동리(佐洞里)
- 노장면(蘆長面) : 마전리(麻田里), 고산후리(高山後里), 능동리(陵洞里), 원당리(元堂里), 당하리(堂下里)

이와 같은 편제는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 1871년(고종 8)의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또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이때 일제는 전국의 기존 4,351면을 2,517면으로 줄이면서 검단면·마산면·노장면을 검단면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제는 광복 이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설치된 것이다. 인천 서구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면(面)과 리(里)는 사라지고 검단동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후 검단동은 계속 분동되어 여러 검단의 동들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02년 1월 1일에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동으로서 검단 1동과 검단 2동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으로 2005년 9월 1일에 행정동인 검단 1동이 검단 1동과 검

7) 검단리(儉丹里)와 검단면(黔丹面)을 보면 '검단'에 대한 한자표기가 다른데 이는 검단이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을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검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없다.

I. 검단의 연혁과 법정동명 유래

단 3동으로 분동 되었으며, 2006년 9월 1일에는 검단 1동이 다시 검단 1동과 검단 4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5일에는 검단 1동의 오류동, 왕길동이 검단 5동으로 분동되었다.⁸⁾

이후 검단 1~5동으로 나뉘었던 행정동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⁹⁾ 그리하여 검단동(검단 1동)이 법정동 마전동 일부와 금곡동을, 불로대곡동(검단 2동)이 불로동과 대곡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원당동(검단 3동)은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을, 당하동(검단 4동)이 법정동 당하동 일부와 마전동 일부를 관할하며 오류왕길동(검단 5동)이 오류동과 왕길동을 관할하였다.¹⁰⁾

2019년에 당하동으로부터 마전동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동인 마전동이 생겼고, 2021년에는 원당동에서 아라동이 행정동으로 독립하며 원당동 일부와 당하동 일부가 이에 속하게 되었다.¹¹⁾ 이후 2025년 10월에 아라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행정구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검단동 탄생 (1995년)	1차 분동 (2002년)	2차 분동 (2005년)	3차 분동 (2006년)	4차 분동 (2013년)	행정명칭 변경 (2018년)	당하동에서 마전동 분리 (2019년)	원당동에서 아라동 분리 (2021년)	아라 1,2동 분동 (2025년~현재)
검단동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원당, 불로, 대곡	검단 1동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 1동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일부	검단 1동 마전 일부, 금곡, 오류, 왕길, 당하 일부	검단 1동 마전 일부, 금곡, 당하 일부	검단동	검단동	검단동	검단동
			검단 5동 오류, 왕길	오류왕길동	오류왕길동	오류왕길동	오류왕길동	
		검단 4동 마전 일부 당하 일부	검단 4동 마전 일부 당하 일부	당하동	당하동	당하동	당하동	
		검단 3동 당하 일부, 원당	검단 3동 당하 일부, 원당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검단 2동 원당,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검단 2동 원당,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검단 2동 원당,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검단 2동 원당,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검단 2동 불로, 대곡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불로대곡동

〈표 1〉 검단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

8)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12쪽.

9) 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사전 안내」.

10) 인천광역시 서구청, 2018, 『2018 구정백서』, 41쪽.

11) 인천광역시 서구청, 2025, 앞의 책 684, 693쪽.

인천 서구는 1970년 이래로 진행된 도시화와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청라 및 검단의 신도시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분구에 대한 필요성으로까지 이어졌다. 2025년 1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분구가 결정되었고,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서해구가 되어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에 개편될 예정이다.

2. 법정동명 유래

1) 마전동(麻田洞)

마전동의 ‘마전(麻田)’이란 명칭은 ‘삼바지’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삼바지’는 ‘삼밭’의 변형이라 한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예전부터 삼을 많이 심어왔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다.¹²⁾ 그러나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김포현 토산편에는 황옥, 청옥, 송어 등만 있고,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도서』의 『김포군읍지』에도 삼은 보이지 않는다.¹³⁾ 옛 문헌에는 김포에 삼[麻]이 생산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전(麻田)’이 삼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마도 ‘마전(麻田)’은 원래 현지인들이 부르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어떤 말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다.

12)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16쪽.

1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포현 토산, “황옥(黃玉)[현 서쪽 검단리(儉丹里) 애갈산(艾葛山)에서 산출된다.]·청옥(靑玉)[현 동쪽 임촌(林村)에 산출된다.]·송어·응어·면어·굴[石花]·토화(土花)·게·청해(靑蟹)·물고기·부레[鰓]·뱅어[白魚].(黃玉[出縣西儉丹里艾葛山], 靑玉[出縣東林村], 秀魚, 鰓魚, 綿魚, 石花, 土花, 蟹, 靑蟹, 魚鱓, 白魚.)”; 『여지도서』 보유편 『김포군읍지』 물산, “응어(鰓魚), 생게(生蟹), 청게[靑蟹], 토화(土花)(鰓魚, 生蟹, 靑蟹, 土花)”

2) 금곡동(金谷洞)

금곡동은 예부터 ‘씻골’이라고 불렸으며 ‘금곡(金谷)’은 ‘씻골’의 한자표기이다. 이러한 지명은 금곡리 산 400번지 일대를 ‘동은터’라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금, 은, 동을 채굴하였고 1950년대 말까지 철을 캐다. 그러나 지금은 광물이 고갈되어 폐광되었다.¹⁴⁾

3) 오류동(梧柳洞)

오류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동나무와 수양버들이 많은 마을이라서 오류라고 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북쪽 넓은 벌에 오리가 많이 앉으므로 오리골이라 했다는 설이다.¹⁵⁾ 세 번째로는 오리라는 이름은 고대 지명에서 ‘여리’, ‘여래’, ‘어러’ 등과 마찬가지로 ‘크다[大]’, ‘주(主)’의 의미를 가지는데, 오리골은 주곡(主谷)으로 임[主]이 사는 마을이므로 존장(尊長)의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다.¹⁶⁾ 특히 마을 입구 쪽에 ‘검당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뜻이고 오리울 즉 오류동은 ‘천신제를 집전하던 존장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라고 보기도 한다.¹⁷⁾ 현재 이중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유래나 가설은 없다.

4) 왕길동(旺吉洞)

왕길동은 어떤 대사가 마을 이름을 ‘왕성할 왕(旺)’, ‘길할 길(吉)’ 자를 써서 지으면 부유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어졌다는 설이 구전으로 전해진다.¹⁸⁾ 정조 때 만들어진 『호구총수』에는 ‘왕길리(王吉里)’라 하여 현재 쓰는 ‘왕길(旺吉)’과 다른 한자를 썼다. 하지만 왕(王)에도 왕(旺)과 같은 ‘왕성하다’는 뜻이

14)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22~123쪽.

15)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54쪽.

16)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189쪽.

17) 김포군, 1995, 앞의 책, 189쪽.

18)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60쪽.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¹⁹⁾ 오히려 『호구총수』의 왕길(王吉)의 ‘왕(王)도 ‘왕성하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

5) 당하동(堂下洞)

당하동은 당(堂)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원당동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서 당하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²⁰⁾ 실제 당하동은 지도상으로 원당동 아래에 있고, 『호구총수』에도 ‘원당리’와 ‘당하리’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예부터 원당동을 기준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여기서 당(堂)은 신당이 있는 당산, 옥계봉 또는 서낭당고개의 서낭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6) 원당동(元堂洞)

원당이란 당(堂)이 있는 마을을 뜻한다. 한자 원(元)은 ‘ 으뜸 ’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라는 뜻도 있다.²¹⁾ 따라서 한자 뜻으로는 ‘ 으뜸 되는 당이 있는 마을 ’과 ‘ 원래부터 당이 있던 마을 ’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당(堂)은 일반적으로 평지에 있지 않고 인근 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당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당산(堂山)이라고 한다.²²⁾ 따라서 원당동의 당(堂)도 당산(堂山)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당동 지역의 당산으로 추정되는 것은 옛 원당리 마을에서 서북쪽에 있는 옥계봉이다. 옥계봉은 뱀산, 배미산, 야미산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원당동, 불로동, 김

19) 중국의 『국어사전(國語辭典)』에는 『莊子』 『養生主』의 ‘뭇가에 사는 꿩은 열 걸음 만에 한 입 쪼아 먹으며, 백 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신적인 태도(神態)는 비록 왕성해질 테지만 (새의 본성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飲, 不斲齏乎樊中, 神雖王, 不善也.)’와 당나라 이백의 시인 『贈張相鎰』의 二首之二的 ‘영렬(英烈)이 남긴 후손에게 신령함이 백 대에 걸쳐 깃들 것이다.(英烈遺厥孫, 百代神猶王.)’ 두 글에서 ‘왕(王)은 ‘왕(旺)’과 통한다고 하였다. (출처 : <https://www.zdic.net/hans/王>)

20)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40쪽.

21) ‘원래(原來)’의 옛 표기가 ‘원래(元來)’이다.

22) 당(堂)에 대해서 ‘당’이 반드시 건축물이 축조된 곳을 의미하지 않고 산 정상에 낮게 쌓은 돌단과 신수(神樹) 밑의 평토 및 입석 등을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 쌓은 ‘단’이 ‘당’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壇)과 당(堂)은 구분되며 단(壇)은 ‘사직단’, ‘성황단’ 등 주로 조선시대 유교식 제사와 관련된 시설인 경우가 많다. 물론 서낭당과 같이 돌을 쌓은 것도 있으나 당(堂)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상을 모신 신당(神堂)을 가리키며 주로 민간신앙의 장소에 해당된다.

포에 걸쳐 있는 금정산을 말한다. 금정산 즉 옥계봉을 뱀산 혹은 배미산이라고 부른 것은 이 산에 꽃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³⁾

옥계봉은 옛 기록에는 야미산으로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현 산천편에 “망산(望山)[현 남쪽 2리 지점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현종 8년에 간행된 『경기지』 중 『김포군읍지』 산천편에는 망산이 없고 함께 수록된 지도에는 봉릉사 위에 야미산이 있다. 2리는 약 800m가 되는데, 장릉의 재실에서 옥계봉까지의 거리가 약 800m 정도이며 지도의 그림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를 근거로 야미산이 옥계봉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옥계를 ‘대궐의 계단’으로 해석하여 ‘신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계단’으로서의 단이며 이것이 곧 당을 의미한다고도 한다.²⁴⁾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망산(望山)의 ‘망’은 보름을 뜻하며 ‘밝다’라는 의미여서 ‘신을 모시는 산’, ‘신산’의 뜻이 된다고 한다. 또한 야미산도 ‘밤[夜]’과 ‘그칠 미(彌)’이므로 ‘밤이 그치다’는 뜻인데 이것은 아침을 말하고 아침은 곧 ‘밝다’의 뜻이 된다. 그래서 ‘망산’과 ‘야미산’은 모두 ‘밝’을 말하는 것이라 ‘신산’이 되므로 둘 다 언어적으로 ‘당산’이 된다고도 한다.²⁵⁾

그런데 『김포지명유래집』 및 『서구사』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여 원당에서 장릉으로 통하는 고개를 서낭당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²⁶⁾ 따라서 장릉에서 원당동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서낭당이 원당(元堂)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낭당은 1960년대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없어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3) 이에 대해서는 야미산이 와전되어 배미산이 되고 다시 뱀산이 된 다음 꽃뱀이 많다고 윤색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천신제와 관련하여 ‘비는 산’이라는 의미로 ‘빌뫼’라고 불렀다가 ‘배미산’이라고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경기도 김포군, 1995, 앞의 책, 156쪽).

24)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46쪽.

25)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45~146쪽.

26)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156쪽; 인천광역시 서구, 2014, 앞의 책, 147쪽.

7) 불로동(不老洞)

불로동은 한자 뜻 그대로를 풀이하면 ‘늙지 않는 동네’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만수산(萬壽山)에서 어느 노인이 산삼과 약초를 채취하여 먹고 장수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만수산의 불로초(不老草)를 캐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그때부터 이 마을을 ‘불로동(不老洞)’이라 불렀다고 한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불로동도 천신제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즉 ‘불’이 천신제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은 ‘밝다’의 고어로 하늘이 만물을 주재하는 절대자임을 믿었던 조상들의 사고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며 여러 형태의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음이 유사한 한자들인 ‘불(不), 백(白), 발(鉢), 팔(八), 벽(碧)’ 등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의 명칭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따라서 불로동의 지명에 사용된 한자표기는 이곳에서 예전부터 천신제를 지내왔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불’계의 지명으로서 옛날부터 천신제를 지내왔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지명이라는 것이다.²⁸⁾

또한 불로동에는 해발 128.3m의 제향산이 있는데, 이 산은 이름은 제사와 관련이 있다. 옛날에는 천신이 쉽게 하강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을 택해 제단을 쌓고 기원을 했기 때문에 제향산이 선택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²⁹⁾ 그런데 『김포군지명유래집』에는 옛 불로마을 동북쪽에 해발 59m의 당제를 지내는 당산이 있다고 하여 제향산에서 천신제를 지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견해도 있다.³⁰⁾

2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184쪽.

28)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28~129쪽.

29) 김포군, 1995, 앞의 책, 163쪽.

30) 김포군, 1995, 앞의 책, 164쪽.

8) 대곡동(大谷洞)

대곡동의 대곡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³¹⁾ 예전에 김포군 마산면에 속했던 곳으로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한글, 황골, 황곡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대곡도 그 중 하나였다.³²⁾ 대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현재 대곡동에 속한 마을들이 가현산 동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주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의 대곡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곡리와 두곡리를 병합하여 생긴 법정리로서의 대곡리와 관련이 있다.³³⁾

또한 대곡동은 서곶의 약쑥과도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김포군지』에 의하면 서곶에서 생산되는 약쑥의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이러한 약쑥은 계양의 황해장터에서 수납되어 서곶지역에 속하는 발아장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때 무역상인들이 묵던 곳은 여인숙이 많은 큰 골짜기 동네였으며 이곳이 지금의 ‘대곡’이라고 전한다.³⁴⁾

31)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33쪽.

32)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17 경기편(상)』, 241쪽.

33) 인천광역시, 1998, 『인천의 지명유래』, 417쪽.

34)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 『김포군지』, 1702쪽.

|참고문헌|

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고려사(高麗史)』
- 『경기지(京畿誌)』
- 『경기읍지(京畿邑誌)』
-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 『김포군지』.
-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 국사편찬위원회, 1994, 『신편 한국사』 23.
- 인천광역시, 1998, 『인천의 지명유래』.
-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 인천광역시 서구청, 2025, 『2025 규정백서』.
- 최봉수,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17 경기편(상)』.

웹사이트

인천광역시 서구청(주소)

II



마전동



文化
史
遺
産



II. 마전동

1. 마전동의 연혁과 지명¹⁾

정조 때 만들어진 『호구총수(戶口總數)』 및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에 의하면 검단면(黔丹面)에 소속된 리 중에 마전리(麻田里)와 여래리(如來里)가 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합 정리하면서 마전리, 여래리를 마전리로 통합하였고, 이때 마전리는 11개의 행정리로 나누어졌다. 마전 1리는 여래부락, 마전 2리는 가현부락, 마전 3리는 월현부락, 마전 4리는 능내부락, 마전 5리는 완정부락, 마전 6리는 청마부락이었다. 광복 이후로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2년 마전 7리 문현부락, 8리 방현부락, 9리 목화부락, 10리 중동부락, 11리 장미부락 총 5개의 행정리가 다시 추가되었다. 마전리는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면서 행정동인 서구 검단동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에는 행정동인 검단동을 다시 1·2·3·4동으로 분리하였고, 이때 마전동이 검단 1동에 속하였다.

이렇듯 마전동에는 11개의 자연마을이 있고 각 마을마다 자연적 특성을 담은 다양한 지명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마전동 지역의 지명을 소개하고 주요 지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마을의 간략한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래(如來)는 마전동의 옛 마을 중 하나로 검단초등학교의 소재지이다. 이곳에는 면사무소와 파출소도 있었으나 나중에 월현으로 옮겨가게 된다. 조선 후기 기록인 『호구총수』에는 여래리(如來里)라고 하여 본래 마전리(麻田里)와 함께 별개의 리(里)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래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마전1리가 되었고 1995년에는 검단동의 일부가 되었으며 2002년에는 검단1동의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76-77쪽, 116-120쪽.

II. 마전동

청마(靑麻)는 과거 검단면 마전리에 속했으며, '마전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마을이다. 1995년 인천광역시에 들어갈 때 검단동의 일부가 되었고 2002년에 검단1동의 일부가 되어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가현(歌鉉)은 가현산과 관련된 지명으로 예전에는 더 큰 취락인 여래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마전2리가 되었고, 1995년에 검단동의 일부가 되었으며 2002년에는 검단1동에 속하여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원현(院峴)은 관리들이 묵는 역원(驛院)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마을로 『호구총수』 등 조선시대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마전 3리가 되었다. 능내(陵內) 역시 조선시대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마전 4리가 되었다.

문현과 방현 및 목화, 완정(完井)은 원현 및 능내와 마찬가지로 『호구총수』 등 조선시대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문현은 마전 7리, 방현은 마전 8리, 목화는 마전 9리, 완정은 마전 5리가 되었다.

마전동에는 자연환경 및 지리에서 비롯되거나 구전되는 이야기가 녹아 있는 지명이 많다. 이를 각 마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래(如來)에는 다양한 지명유래가 있다. 먼저 원래는 '여리'였으나 옛날에 이 마을을 지나던 풍수가 '여래'로 고치면 마을이 흥하여 잘살게 될 것이라 해서 고쳤다는 설이다. 두 번째 설에서는 예전에 이 마을에 살면서 적선을 많이 한 '여래'라는 승려를 기리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여래'라고 했다고 전해온다. 이외에도 '열야, 여래, 여리'는 모두 대(大), 주(主)의 뜻이므로 '여래' 또는 '여리'는 모두 '큰 마을'이라는 뜻이며, 그 이유는 여래 마을이 예전부터 이 일대에 있던 법정리로 으뜸 되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여래 마을에 속한 지명 중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큰 골 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골말', 대장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품무골', 흰색의 큰 바위

가 범바위라서 붙여진 ‘범바위산’, 마을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가운데말’, 가현과 능안에서 흘러서 여래 별판에서 합류한 다음 여래 모퉁이를 지나 쇠제로 흐르는 나진포천의 상류인 ‘큰개울’, 만수산 서쪽 능선부리로 백로와 황새가 많이 앉던 곳이라는 ‘황새모퉁이’ 등이 있다.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범바위산 동쪽 능선 위의 봉우리인 ‘작은짜’, 능내교의 북쪽 산등성이인 ‘안산’, 가현으로 가는 길 아래에 있는 우물인 ‘아랫물’, 작은짜 북동편 기슭에 있는 바위인 ‘둥둥바위’, 여래에서 불로동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하는 고개인 ‘디리재고개’ 등이 있다.

둘째로 가현(歌鉉) 마을은 예전에 ‘간약골’로 불리왔는데 마을 뒷산인 가현산을 따라 ‘가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현산 남쪽 큰 골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현산의 옛 이름 ‘가린산’을 따라서 ‘가린골’이라 했고 후대에 ‘가련골’로 변이되었으며, 다시 음운 변화에 의해 ‘가낙골’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어에서 ‘갈’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린골’은 ‘큰 골’이란 의미가 되므로 간약골은 ‘큰 골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라고 한다.

가현 마을에 속한 지명으로는 대표적으로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는 가현산이 있다. 현재 가현산에 대한 한자표기는 ‘가현산(歌鉉山)’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가현산(歌鉉山)으로 쓰고 있다.²⁾ 또한 가현산에 있는 부안임씨 묘역 앞에 있는 비석인 『증봉익대부삼사사장(贈奉翊大夫三司使將)』에는 ‘가연산(佳連山)’으로 쓰고 있다.

가현 지역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예전에 순흥안씨가 터를 잡았다는 ‘안(安)터’, 당제를 지냈던 ‘당산’, 망절미 북편의 산기슭으로 수리가 많이 앉던 곳이라고 하여 붙은 ‘수리편데이’,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는 ‘서낭당고개’, 어느 생원이 이 고개 근처에 살면서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인 ‘덕고개’, 부영이가 깃들던 바위라고 하여 붙은 이름인 ‘부영바위’가 있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京畿) 김포현(金浦縣). “가현산(歌鉉山)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II. 마전동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가현산 남쪽의 작은 가현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자봉(세자봉)’, 사자봉 줄기 남쪽 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장산’, 장산의 동쪽 줄기인 ‘망절미’, 마을 북편 가현산 밑의 서낭당 부근의 골과 마을인 ‘삼복골’, 덕고개 북서편 마을인 ‘윗말’ 등이 있다.

셋째로, 능내(陵內)에는 능안이라는 옛 지명이 전래되어 왔다. 이는 마을에서 완정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완정과의 마을 경계에 가까운 오른편 산골짜기를 ‘능안’이라 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능안 골짜기 주변에 망부석을 비롯한 석물들이 파손된 채 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하며, 고분 2기(基)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강릉(康陵)이라 하기도 하고 만수산 서편에 능이 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³⁾ 또한 능안 앞들의 논을 ‘제청배미’라고 부르는데 제청이란 장사지낼 때 무덤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문헌으로는 고증할 수 없다.

능내마을에 속한 지명 중 자연환경 및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논머리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논모루’, 논모루 앞에 신나무가 있다고 하여 붙은 ‘신나무들’, 풀무가 변형된 이름으로 보아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푸무골’, 보의 안쪽이라는 의미의 ‘보안’이 있다. 또한 마을에 강릉이라는 능이 있다고 하여 ‘강릉고개’, 황새 및 백로 등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황새모테이’ 등이 있다.

장소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사거리와 여래 간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면서 오른편의 큰 골과 그곳에 있는 마을인 ‘대곡’, 대곡 다음의 골에 있는 마을인 ‘장자골’, 장자골 다음의 골에 있는 마을인 ‘소곡’, 소곡 다음의 골로 이 마을 전체의 지명이 유래된 곳인 ‘능안’, 능안에서 완정 쪽으로 산모퉁이를 돌면 오른쪽에 있는 ‘약천골’, 만수산 서쪽 능선에 있는 작은 봉우리인 ‘작은 만수산’, 대곡의 북쪽 산 너머 일대인 ‘재너머’ 등이 있다.

넷째로 원현, 문현과 방현 및 목화, 완정(完井)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67쪽.

다. 원현(院峴)은 역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며, 문현은 임진왜란 때 적을 무찌르는 성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완정은 '완제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물이 좋아 완정(完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⁴⁾

이 마을에는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예전에 역원 터가 있었다고 전해오는 '원터', 목화 및 장미아파트의 북편에 있는 아파트촌인 '중동', 중동 및 방현아파트 사이에 있는 아파트촌 '장미', 목화아파트 남쪽의 아파트촌인 '원미', 원현고개 정상에서 여래 방향으로 내려가서 고개의 아랫부분인 '방아재고개', 사거리에서 왕길동으로 나가는 도로 왼편의 산밭 일대인 '학굴', 사거리에서 왕길동으로 향하는 아파트 입구의 산부리 일대인 '갈머루', 갈머루에서 서북의 산부리인 '돌케', 신촌사료공장 뒤편인 '원너머' 등이 있다.

4) 인천광역시, 1998, 『인천의 지명유래』, 422쪽; 방현 및 목화에 대한 지명유래는 보이지 않는다.

2. 마전동의 문화유산



〈지도 2〉 마전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한백륜 묘역



〈사진 1〉 한백륜 묘역

조선 전기의 문신 한백륜(韓伯倫)의 무덤이다. 한백륜의 자는 자후(子厚)이고 호는 의암(毅菴)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⁵⁾ 한백륜의 증조부는 증병조판서 한휴(韓休)이며 조부는 찬성공(贊成公) 한계복(韓季復)이다. 아버지는 감사공(監司公) 한창(韓昌)이며, 어머니는 판나주목사 이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118쪽.

옥(李勗)의 딸 전의이씨다. 감찰 임유(任柔)의 딸 서하부부인(西河府夫人) 풍천임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4남 5녀를 두었다. 장남은 한환(韓權)이고 차남은 한열(韓悅), 3남은 한항(韓恒), 4남은 한순(韓恂)이다. 장녀는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이다.⁶⁾

한백륜은 음서로 관직에 나가 사온직장이 되고, 1463년 사옹별좌로 있을 때 장녀가 세자궁의 소훈(昭訓)이 되었다. 1466년에 의빈부도사로 발탁되었고 1468년에는 공조정랑에 승진하였다. 1468년 예종이 왕위에 오른 후 장녀가 인순왕후가 되면서 보국승록대부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진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남이(南怡) 장군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1469년에는 오위도총부도총관이 되어 품계가 대광보국승록대부에 이르게 된다. 1470년에는 우의정에 승진되었으며 이듬해인 1470년에는 성종의 즉위를 도와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고 이어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에 봉해졌다.⁷⁾

정인지, 한명회, 신숙주 등과 교류했으며 청백리로써 이름을 날렸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고 누추해 친지들이 수리할 것을 권했으나 “선인께서 물려준 것으로 비바람만 가리면 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⁸⁾

묘역 입구에 신도비가 있는데, 원래 1474년에 만들었던 것이 멸실되어 1981년에 옛 신도비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세운 것이다. 신도비 왼쪽에는 1978년에 후손들이 세운 사당인 능안재(陵安齋)가 있다.

한백륜 묘의 봉분은 서하부부인 풍천임씨와 단분으로 되어 있으며, 옛 묘갈과 새 묘갈, 상석과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 1쌍이 있다. 1981년 묘역을 정비하는 과정 중 상석 아래에서 백자묘지명 5매가 출토되었으며 2004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다. 한백륜 묘 아래에는 1990년에 세운 한백륜의 장남 한환, 차남 한열,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67쪽.

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268쪽.

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18쪽.

삼남 한향의 사단비(祀壇碑)가 있다.⁹⁾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능안부락) 산120-4번지이다. 묘역이 위치한 지역을 과거에는 능안골이라고 불렀는데, 한백륜의 묘가 능과 같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

2) 망해사지(望海寺址)



〈사진 2〉 망해사지의 현재 모습 (2025년)

고려 및 조선시대 사찰인 ‘망해사(望海寺)’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東國餘地志)』 등에 ‘망해암(望海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경기도의 현에서 가장 경치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다.¹¹⁾

위치에 대해서는 가현산 남쪽으로 창해에 임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4년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인천북부학술조사』에서는 가현산 세자봉 중턱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1번지 일대 샬터 주위를 망해사지로 보고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¹²⁾ 그러나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한 2010년 사찰지 조사에 따르면 가현산 등산로 중 묘각사에 이르기 전 오른쪽 등산로를 통해 내려가면 보이는 가현약수터 일대가 망해사지였다고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¹³⁾ 현재 주소로는 인천광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268쪽.

1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18쪽.

1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京畿) 김포현(金浦縣) 불우(佛宇). “망해암(望海庵)[가현산에 있다. 남쪽으로 푸른 바다에 임해서 경치가 경기 여러 고을에서 첫째이다.](望海菴[在歌絃山, 南臨滄海, 景致爲畿縣之最]); 『동국여지(東國餘地志)』 경기(京畿) 좌도(左道)○수원진(水原鎭) 김포군(金浦郡). “망해암(望海菴)[가현산 남쪽에 있다. 창해를 굽어보고 있어 경치가 경기도에 속한 현(縣) 중에 으뜸이다.](望海菴[在歌絃山南, 臨滄海, 景致爲畿縣之最])”

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201쪽.

13)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지(상)』, 108쪽.

역시 서구 마전동 산49번지이다.

망해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 등에는 사라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871년에 만들어진 『경기읍지(京畿邑誌)』 『김포군』 사찰에 “망해사는 지금 없다.”¹⁴⁾ 라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확인되는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고려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 초기부터 운영되다가 조선 후기인 19세기 후반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조사에서는 사지 내 평탄지 2곳이 확인되었다. 약수터 부근 평탄지에서는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지만, 서쪽 평탄지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약수터 부근 평탄지에서는 종선문, 어골문, 집선문, 횡선문, 무문 등의 기와편과 백자자기편 및 토기편이 발견되었다.¹⁵⁾ 현재는 약수터가 조성되어 사찰터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능내마을 굴참나무 ①·②

마전동 능내마을에는 오래된 굴참나무 두 그루가 있다. 두 나무 모두 비지정 보호수이며, 이를 편의상 굴참나무 ①과 굴참나무 ②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전동 능내마을 ‘굴참나무 ①’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7-2번지로, 마전동과 불로동의 경계에 있다. 수령은 미상이며 크기는 높이 15m, 둘레 1.5m이다. 가지는 지표 위 1m 지점부터 두 갈래로 나뉘는데 남서쪽 가지는 0.8m이고 다른 하나는 1.2m이다. 마을 원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나무 아래에서 문중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⁶⁾

‘굴참나무 ②’는 ‘굴참나무 ①’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수령은 미상이며 크기는 높이가 15m, 둘레는 1m이다. ‘굴참나무 ①’이 지표 위 1m 지점부터 두 갈래로

14) 『경기읍지(京畿邑誌)』 『김포군(金浦郡)』 사찰(寺刹). “望海寺今無.”

15)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앞의 책, 108쪽.

1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44쪽.



〈사진 3〉 마전동 굴참나무 ①



〈사진 4〉 마전동 굴참나무 ②

갈라진다면, 굴참나무 ②는 지표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특징이 있다.¹⁷⁾

과거 능내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2일 자정에 굴참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제물로는 삶은 닭과 팔 시루 및 백설기 시루를 올렸으며 산고사를 마치면 마을로 돌아와 집집마다 제물을 나누어 주어 음복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 산고사는 1998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¹⁸⁾

4)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소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소설인 『국순전(麴醇傳)』 및 『공방전(孔方傳)』으로 유명한 고려 문인 서하 임춘의 묘소는 가현산 기슭 부안임씨 묘역(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59-1번지) 안에 있다. 『고려사』 및 부안임씨 밀직공파 족보에 있는 임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춘의 초휘(初諱)는 대년(大年)이고 자(字)는 기지(耆之)이며 호(號)는 서하(西河)이다. ‘춘(椿)’이라는 이름은 도피 중의 가명이었는데 나중에 필명이 되었다. 문장

1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47쪽.

1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50쪽.

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나 무신 정권 소의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였다. 고려 의종 때 진사에 합격하여 검교(檢校) 벼슬을 받았고, 훗날 봉익대부삼사사상장군(奉翊大夫三司使上將軍) 순군부령(銜軍部令)에 추증되었다.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 온 집안이 화를 입었을 때 홀로 도망쳐



〈사진 5〉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소

5년간 숨어지내다, 상주와 외가인 예천으로 피신하였다. 10여 년간 유랑생활을 하며 절친인 미수 이인로와 오세제, 조통, 함순, 황보향, 이담지와 죽림고회를 결성하여 시와 문장을 발표하며 현실을 비평하는 글을 쓰며 반항하였다. 평생을 곤궁하게 지내다가 개성으로 올라왔고 이인로의 주선으로 경기도 장단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무신정변(武臣政變)의 비운으로 고뇌와 곤궁이 극에 이르는 한 많은 세상을 향년 30대 후반에 요절하였으며 이인로 등 절친들의 주선으로 가현산 자락에 묘소를 준비하였다. 추증 시호는 절의공(節義公)이다. 임춘의 사후 이인로가 20년간 유고를 모아 1222년에 문집을 발간하니 그 제목이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이었다. 고려말 담인(談印) 스님은 서하집이 귀해지자 그 가치를 알아보고 후세에 전하고자 청동호(보을 제208호)에 담아 약야계(若耶溪) 동탑 속에 보관하였다가 350년이 지난 1714년에 청도 운문사 스님 인담(印談)이 꿈에서 나온 도사의 도움으로 찾았다. 14대 후손 임재무는 인담 스님에게 책을 받아 세 번의 재상을 지낸 최석정에게 부탁하여 중간본 서문을 작성하고 하고 조선 숙종에게 바쳤고 영의정이었던 최석정(崔錫鼎)이 출간하였다고 한다.¹⁹⁾

부안임씨 밀직공파 족보에는 임춘의 무덤 위치에 대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가야골 간좌(艮坐)이다. 남압사동(南鴨寺洞) 입구에 비석이 있으니 세상에서

19) 『고려사』 임춘 열전 및 부안임씨밀직공파 인터넷족보(http://www.yesjokbo.net/jokbroot/new_default.asp)

칠현비(七賢碑)라 칭하다.”라고 쓰여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임춘 선생이 검단에서 활동한 흔적은 족보 및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임춘 선생의 무덤 및 묘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다.

‘모처에 살던 나주임씨(羅州林氏)가 사자봉 밑에 부안임씨의 시조인 임춘(林椿)의 묘비가 있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묘비를 몇 년을 두고 찾았으나 찾지를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풍수가 안타깝게 여겨 ‘못된 사람이 연못에 넣었다’라고 알려주었다. 풍수가의 말을 듣고 연못 속을 뒤지니 과연 부안임씨 시조의 묘비가 있었다고 전한다.’²⁰⁾

하지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지 『천마와 아기장수』에서는 임춘 선생의 무덤을 찾으러 다니던 사람은 임춘 선생의 후손인 임청(林淸)이라고 하고 있어 여러 전승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임춘 무덤의 발견 경위는 23대손인 임종상 선생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881년 김포 월곶면 개곡리에 살던 18대 후손 종사랑 행 제주목 주사였던 임재호가 고향에 돌아온 후 선조인 임춘 선생의 묘소를 찾고자 족보에 기재된 김포군(金浦郡) 가연산(佳連山)²²⁾ 사자봉(獅子峰) 아래 남암사(南鴨寺) 동구혈을 여러 차례 답사하였다. 그리고 임춘 선생의 묘소가 있었던 마을에서 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묘지석 등의 단서를 찾았고, 김포 월곶면의 종인들과 주변 땅을 파헤쳐서 묘지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춘 선생의 묘소를 찾고자 7년간 투쟁과 소송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19대 후손 임승익은 사마시에 장원급제 후 조선 고종 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둔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었고, 소송자료와 묘지석 가승문집 등으로 고종에게 상

2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324쪽; 인천광역시 서구, 2014, 앞의 책, 119쪽.

2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3, 『천마와 아기장수』, 63~66쪽.

22) 가현산(歌絃山)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소문을 올렸다. 1888년에 임춘 무덤 일대를 부안임씨 문중에 귀속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임춘 무덤 일대는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되어 해마다 전국의 후손 150여 명이 모여 음력 10월 15일에 세일제(歲一祭)를 모시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임춘 무덤이 있는 묘역 아래에는 총 4개의 비석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왼쪽에 비석이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다. 이 비석 상단부의 앞뒤로 쓰여있는 이름은 『증봉의대부삼사사상장군시절의임공휘춘묘비(贈奉翊大夫三司使上將軍諡節義林公諱椿墓碑)』이다. 비신(碑身)의 크기는 높이 188cm, 가로 61cm, 두께 31cm이다. 뒷면에 “대정정사(大正丁巳)”라고 건립 연도가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비석이 만들어진 시기가 191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임춘 선생의 생애와 업적 등이다.



〈사진 6〉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역

무덤이 검단의 가현산에 있는 이유는 『파한집』으로 유명한 고려 중기의 관리이자 문인인 이인로와 관련이 있다. 임춘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천이씨(인천 연수구 원인재) 이인로는 자신과 연고가 있던 검단 마전리의 가현산 사자봉 일대에 묘소를 마련하여 임춘 선생을 모셨다. 그래서 부안임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가현산 사자봉 남쪽에 830여 년 된 임춘 선생의 실제 묘소가 있게 된 것이다.²³⁾

부안임씨 후손들은 2024년부터 임춘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묘소 앞에서 서하임춘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서하임춘문학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며 서하 임춘 선생의 선양 사업을 하고 있다.

23) 임춘 선생 무덤과 이인로 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임종상 선생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사진 7) 가현산 옥돌 광산터 (추정)

5) 가현산 옥돌 광산터²⁴⁾

가현산 기슭에 있었던 광산의 터이다. 옥으로 된 돌을 캐던 광산으로, 현지 주민들은 “옥돌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²⁵⁾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39-5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다만 양이석 선생님 및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조승원

부원장님에 의하면 옥돌 광산터에서 캐 옥돌은 일반적인 옥이 아니다. 광물의 정확한 명칭이나 종류를 알 수는 없지만,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재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왔던 일본인이 개발하였으나 길도 좋지 않고 파기가 힘들어서 버려두었고, 1952년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가 1965년경에 문을 닫았다. 문을 닫기 전 가현산 옥돌 광산터를 운영하던 회사 사장은 서울 사람이며 당시 김포군청을 끼고 사업을 하였다.

옥돌 광산에서 나오는 돌은 광산에서 나오는 돌은 반짝거리는 녹색 돌이고, 처음에는 원석으로 가공할 만한 좋은 돌이었지만 나중에는 잡석, 막돌이 나왔고, 깊은 곳에서는 옥돌, 얇은 곳에서는 잡석이 나왔다. 이 중에서 잡석은 빵아서 길 공사 등에 사용되었다. 작업은 ‘남포질(폭파작업)’을 통해 바위를 깨면 다시 발동기로 빵아서 지게질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남포질 면허가 없는 사람을 써서 파편이 멀리까지 튀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잡석으로는 절구나 다듬잇돌 등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월급을 안 줘서 그 절구랑 다듬잇돌을 가지고 왔다는

24) 가현산 옥돌 광산터에 대한 내용은 마전동에 사시는 양이석(1939년생) 선생님과 아드님인 양승태(1963년생)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옥돌 광산터에서 일하신 경력을 가진 분은 양이석 선생님이며, 양승태 선생님께서 인터뷰 진행을 도와주셨다.

25) 2014년에 발간된 서구사에는 옥돌 광산이 덕고개 북쪽 산줄기에 있으며 대리석을 캐던 곳이라고 했다(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18쪽). 하지만 옥돌 광산에서 인부로 일하신 경력이 있는 양이석 선생님 및 아드님인 양승태 선생님에 의하면 옥돌 광산이 가현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덕고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야기도 전해온다.

사장은 서울 사람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검단 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원당리 별산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소장을 맡았고, 그 밑에 총무를 맡은 부부가 있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을 때는 2~3명, 많으면 10명 정도였다. 옥돌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는 동네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봉급을 제때 주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옥돌의 질이 좋지 않아 이후 완전히 폐광되었고 이후 웅덩이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빠져 죽은 분의 아드님이 모두 사들여서 현재 광산터는 사유지가 되었다.

6)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2구역²⁶⁾



〈사진 8〉 검단1지구 마전6호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9-1번지에 있었던 매장유산이다. 2000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했으며, 2001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2002년에 다른 검단지구와 함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에서는 제4기 갱신세의 퇴적층만 확인되고 있다. 갱신세는 플라이스토세라고도 불리는 지질 시대를 부르는 이름으로, 홍적세 혹은 빙하기라고도 부른다. 시기적으로는 약 258만 년 전부터 11,700년 전까지이며 신생대 제4기의 전기(前期)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인류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2구역에서는 별다른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퇴적

26)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65쪽.

II. 마전동

층을 볼 때 검단에 구석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현재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고 검단1지구 마전6호 어린이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7) 마전동 유물산포지



〈사진 9〉 마전동 유물산포지 (1)



〈사진 10〉 마전동 유물산포지 (2)

마전동에는 총 2곳의 유물산포지가 있다. 하나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6-8번지 일대이고, 다른 하나는 마전동 26-10번지 일대이다. 옛 마전동 삼북골 가현에 위치하는 구릉 남현의 완만한 밭 일대에 해당 구릉의 정상부를 경계로 하여 동서 방향으로 마전동과 대곡동으로 나뉜다. 이곳에서 타날문토기편과 백자,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²⁷⁾ 현재는 농지 및 주택지대로 바뀌었다.

27) 인천광역시 서구, 2014, 앞의 책, 489쪽.

|참고문헌|

고문헌

- 『경기읍지(京畿邑誌)』
- 『경기지(京畿誌)』
- 『고려사(高麗史)』
-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
- 『동국여지지(東國餘地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韓國의 寺址사지(폐사지)현황조사보고서 上 - 서울, 인천, 경기북부』.
-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 인천광역시, 1998, 『인천의 지명유래』.
-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3, 『천마와 아기장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터넷 자료

- 부안임씨밀직공파 인터넷 족보
(http://www.yesjokbo.net/jokboroot/new_default.asp)

Ⅲ



금곡동



文
化
中
心
遺
產



Ⅲ. 금곡동

1. 금곡동의 연혁과 지명¹⁾

1) 금곡동의 연혁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지금의 금곡동 지역은 검단면 소속으로, 신리(新里), 금곡리(金谷里), 좌동리(佐東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고종 35)에 걸쳐 간행된 김포의 군지, 읍지들에는 좌동리가 빠져 있다. 1911년 간행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금곡리의 우리말 지명 ‘쇠꼴’과 ‘좌동’ 모두 올라가 있다. 이를 볼 때 금곡동의 마을에 대한 기록은 문헌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금곡리 일부가 양촌면으로 통합되었으며, 금곡리의 남은 부분과 좌동, 신리를 합해 새로운 법정리인 금곡리로 명명해 검단면에 포함시켰다. 이때 검단면은 지난날의 마산면, 노장면을 합병하였다. 금곡 1리가 원래의 금곡, 2리는 좌동, 3리는 신리로 지정되었다. 이는 광복 후에도 유지되다가, 1989년에 원미 마을이 새롭게 4리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5년 검단지구가 인천광역시에 들어갈 때 금곡리가 검단동의 일부가 되고, 2002년에는 검단 1동에 편입되며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2) 금곡동의 지명

(1) 금곡동(金谷洞)

1리인 금곡리는 예로부터 ‘쇠꼴’로 불려 왔다. 옛날에 풍수가가 마을 뒷산에 쇠돌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 이후부터 ‘금곡(金谷)’이라 했다고 전해지는데, 금곡리는 말 그대로 광물이 매장된 마을이라는 뜻으로서 쇠꼴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

1)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이다. 실제로도 일제강점기 말까지 금을 채굴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철을 채광하였다. 금곡리 산 400번지 일대는 '동은(銅銀)터'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금곡리는 주변 지역의 마을인 두밀과 황골, 그리고 양촌면 마산리 등지와 연계성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된 마을들에는 청동기 유물인 지석묘가 존재하였으며 쇓골과 인접해 있었고, 쇓골의 검테이, 계저, 당제산과 같이 천신제를 지내던 곳이 있었다. 금곡리와 그 주변 마을에 철이 풍부하기에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전 장수이씨(長壽李氏)가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했고, 많은 사료 및 문헌들이 검단면 금곡리로 기록했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 할 수 있겠다. 1995년 3월 1일 자로 검단동에서, 2002년 1월 1일 검단 1동에 포함되고 1개의 통이 되었다.

(2) 좌동(佐洞)

좌동의 지명에 대해서는 많은 추정과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먼저 약 400여 년 전에 남원양씨(南原梁氏)의 선조의 터 왼편에 집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좌동(佐洞)'이라 했다고 한다. 이 지역은 특히 남원양씨 집안의 인물과 유물이 각종 사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마을 유래에 대한 다른 주장도 존재한다. 고려시대까지 이 마을 이름을 원래 '자하동(紫霞洞)'이라 하였으나 가현산맥 밑의 지형이 왼손바닥을 펼친 것 같은 형국이라, 망해암(望海庵) 주지가 '좌(左)' 자에 '인(人)'자를 붙이면 이 마을이 앞으로 번창할 것이라 하여 '좌동'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의 취락명에 '성틀마루테기, 둔전틀' 등의 명칭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이곳이 성이 있는 마을이었고, 옛 고어(古語)에서 '성(城)'이 '자'로 읽혔기 때문에 지명이 변화되어 '좌동'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존재한다.²⁾ 이러한 주장을

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49쪽.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가현산성’의 존재가 아닐까 싶다.

좌동은 일제강점기에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금곡리에 속하게 되면서 금곡 2리가 되었고, 이는 광복 이후로도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1995년 3월 1일 검단동으로, 2002년 1월 1일에 검단 1동에 포함되고 1개 통이 되었다.

(3) 신동(新洞)

조선시대에 양촌면 대포리에 있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명 그대로 신리는 ‘새로운 마을’ 또는 ‘새로 된 마을’의 옛말인 ‘새말’이라 불리다가, 한자 지명인 ‘신동(新洞)’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신리(新里)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부군면 통폐합 시기까지 존재하다가 금곡리에 속하게 되면서 금곡 3리가 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1일 검단동에 속하게 되었고, 위의 지역들처럼 2002년 1월 1일 검단 1동에 편제되었다.

2. 금곡동의 문화유산



〈지도 3〉 금곡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약천사지



〈사진 11〉 약천사지 터 (출처: 문화재청)

약천사지는 마전동 할미산 기슭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할미산 북쪽 기슭 숲속에 자리했다고 하며, 지금은 높이 20cm 크기의 작은 샘만이 남아있다.³⁾ 금곡초등학교 뒤편 낮은 산자락 아래 민묘와 민가의 경작지 근방을 약천사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민묘와 경작지 부근에서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으나 사지와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은 적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215-5번지 일원이다.⁴⁾

다만 이 약천사지의 다른 지명인 ‘약천사지’가 기타 문헌상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최근 연구된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사지』를 보면 ‘약천사지’이지만 김포 관련 문헌에서는 ‘약천사지’로 나오기 때문이다.⁵⁾ 이후 2000년대에 문헌조사와 연구조사가 진행된 결과 ‘약천사지’가 정식명칭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좌동 토성터

좌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이 지역에 토성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사료에 나오는 증거를 보면, 먼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와 『전국유적목록(全國遺蹟目錄)』에는 가현산에 가현산성(歌絃山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검단면 금곡리 가현산에 있다. 둘레 약 170간(間)의 낮은

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218쪽.

4)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59쪽.

5)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지 - 上』, 123쪽;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77, 『金浦郡誌』 참조.

토축(土壘)이 있다. 필사로 된 자료가 아닌 구전에는 고려조의 축조로서 고려의 후사찰(後寺刹)이라고 전한다. 기와의 파편이 산재한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⁶⁾ 이를 볼 때 강화에 있는 사찰문화 유적과 닮은 점이 존재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로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면 그 기능적 형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구전으로 후사찰이면서 기록상에는 산성이라 한다면 대외 방어용이면서 종교적 기능까지 담당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즉, 가현산성의 기능이 단순히 토성이 아니라, 금곡리를 방어하면서도 종교적인 구심점을 하였을 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는 대몽항쟁시기의 고려시대 강화의 건축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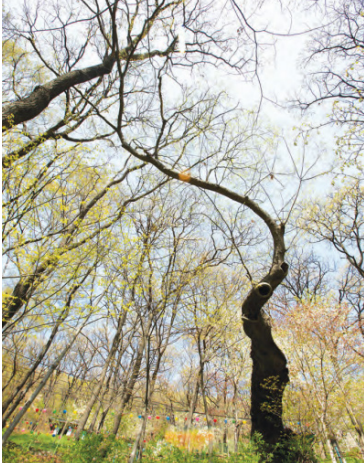
또 다른 자료인 『전국유적목록』에는 '주위 약 70간⁷⁾의 토축이 있고 고려조에 축조하여 붕양(崩壤) 되었으며 도로가 통과한다. 이 산성은 가현산과 사자봉 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교적 현대의 기록을 보면,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발행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위 기록들을 인용하여 토성터를 '가현산성(歌絃山城)'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현산성(歌絃山城)의 존재 가능성은 지명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금곡동 좌동(佐洞)마을의 옛 지명이 '자하동(紫霞洞)'인데 여기에서 '자(紫)'는 고어(古語)에서 '성(城)'을 뜻한다. 또한 '성틀마루테기, 둔전틀' 등 토성터와 연관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⁸⁾

다만 이 토성터의 진정한 기능과 형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토성터가 축조되었던 구체적인 장소도 불분명하다. 단지 많은 연구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곳에 산성이 존재하였다고 전하는 구전과 자료를 통해 추측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산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금곡동의 종교 및 지역방어사 연구에서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21쪽;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179쪽.

7) 1간은 약 181cm이다 따라서 181*70으로, 약 126.7m로 추정된다.

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부, 『전국유적목록(全國遺蹟目錄)』, 54쪽;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180쪽.



〈사진 12〉 묘각사 노티나무 ①



〈사진 13〉 묘각사 노티나무 ① (2025년 11월)

3) 묘각사 노티나무 ①⁹⁾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36-181(금곡동 565-3번지, 구 지번 금곡동 43번지)에 위치한 묘각사에는 세 그루의 오래된 노티나무가 있다. 2014년에 발간된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의 명칭을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노티나무 ①, ②, ③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신동(新洞)마을에서는 뒷산의 당산나무에서 1980년대까지 천신제를 지냈다. 신동에서 가현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현재는 묘각사가 있으며 군부대를 돌아서 올라가야 당산에 오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인 묘각사 노티나무 ①에서 음력 정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에 산고사를 지냈다. 특히 정월에는 새해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고 풍년을 바라는 제를 올렸으며, 시월에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올렸다.

이때 당주(當主)는 부정이 없고 깨끗한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남자들은 당주를 도와 제물을 지고 산에 올라 제를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도왔다. 당주는 당산나무 옆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75-81쪽.

샘물을 이용하여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자정에 제를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마을 공동의 소지를 올렸으며, 제의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고 마을로 돌아와 제물을 나누어 음복했다고 한다.

금곡동 묘각사 느티나무 ①은 가현산 중턱 신동(新洞)에서 가현을 왕래하는 서낭당 고개에 있는 묘각사 경내 법당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비지정 보호수이며, 수령은 약 300년이다. 높이는 15m이며 둘레는 3m이다. 현재 본체가 훼손되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진 14〉 묘각사 느티나무 ② (2025년 3월) 〈사진 15〉 묘각사 느티나무 ② (2025년 11월)

4) 묘각사 느티나무 ②¹⁰⁾

금곡동 묘각사 느티나무 ②는 묘각사 법당 옆에 위치하고 있다. 비지정 보호수이며 수령은 약 200년이다. 높이는 15m이며 둘레는 4m이다. 현재는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비룡목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최근 연구 문헌 등에는 느티나무 ②로만 표시되고 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83쪽.

5) 묘각사 느티나무 ③¹¹⁾

금곡동 묘각사 느티나무 ③은 묘각사의 종각 옆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본체가 훼손되어 그 원형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지정 보호수이며 수령은 약 300년이고, 높이 15m, 둘레 5m로 기록되었다. 2025년에는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자라 있는데 소실된 이후 새로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6〉 묘각사 느티나무 ③



〈사진 17〉 전각 앞 소실된 나무 자리 (2025년 11월)

6)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1구역¹²⁾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1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7-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했던 ‘인천 검단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사업 중 나뉜 구역을 뜻한다.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2002년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백자편과 질그릇편 각 1편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아쉽게도 실질적인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논으로 사용 후 이를 다시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1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88쪽.

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하대학교박물관·인천시도시개발본부, 2003, 『인천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 보고서』, 21~24쪽.



〈사진 18〉 조사 전 전경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이는 토양의 퇴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변형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특기할만한 것은 제4기 갯신세 퇴적층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발견을 통해 해당 지역에 구석이 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후속 조사에서는 큰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현

재는 금곡 어린이공원으로 변하여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공용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19〉 Tr. 3 전경



〈사진 20〉 Tr. 2 북벽 토층상태



〈사진 21〉 Tr. 2 전경

검단유적 1지구 1구역 발굴 사진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참고문헌|

고문헌

- 『각사등록(各司謄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77, 『김포군지(金浦郡誌)』.
-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광역시사』 제1권 자연환경과 지리.
-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보고서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부, 1971, 『전국유적목록(全國遺蹟目錄)』.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지 - 上』.
-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 『인천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하대학교박물관·인천시도시개발본부, 2003, 『인천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 보고서』.

IV



오류동



文化遺產



IV. 오류동

1. 오류동의 연혁과 지명¹⁾

오류동 일대는 조선 중엽 이전만 해도 울창한 오동나무 숲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숲 가장자리에는 한 그루의 버드나무가 인상적으로 서 있었다고 전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나무를 마을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마을 이름을 ‘오류리(梧柳里)’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전승에서는 마을 북쪽에 드넓은 갯벌이 펼쳐졌는데, 철마다 이곳에 오리 떼가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오리골’ 또는 ‘오리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과거 마을의 옛 지명으로 전해지는 ‘오리’, ‘여리’, ‘여래’, ‘어리’ 등은 모두 ‘크다’ 혹은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오리골’이나 ‘오리울’이라는 이름은 ‘주곡(主谷), 즉 마을의 중심 골짜기 혹은 마을을 대표하는 중심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른이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검단축’이라는 지명은 ‘신(神)·당(堂)·축(築)’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가리킨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마을이나 부족의 지도자가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이 제사 의식을 담당할 인물을 무당, 즉 ‘무(巫)’라 불렀다. 또한 인근 지명인 ‘도돌깨고개’ 역시 여러 마을이 모여 굿을 벌이던 장소로, ‘땅을 돌워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변형되어 생긴 지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오리울’이라는 지명에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천신제를 주관하던 지도자가 거주했던 중심 마을이라는 문화적·종교적 상징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숫굴’이라는 지명도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도(蘇塗)’와 연관된 ‘소골’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며, 마을 내 신성한 장소 또는 제사의

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중심지를 뜻하는 명칭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김포군 관련 고문헌에서는 오류동이 법정리로 등장하지 않으며, 본래 고잔리(高蠡里)에 속한 자연촌락으로 추정된다. 300여 년 전 배천조씨(白川趙氏) 문빈(文彬)이 입학해 입학조가 되었으며 현재 후손들이 세거해 살고 있다. 경주이씨, 결성장씨 등은 약간 후대에 입학해 여러 대를 세거해 오고 있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부터 시작하여,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 1871년(고종 8)의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에 이르기까지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오류리는 법정리로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다. 즉, 조선시대에는 오류동이 독립적인 행정 단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잔리(高蠡里)에 속한 자연촌락의 한 지역으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일제는 조선 전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옛 검단면 내 여러 자연촌락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때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을 묶어 새로운 행정리 ‘오류리’를 구성하고, 마산면, 노장면, 검단면을 합쳐 확대 편제된 검단면 안의 8개 리 중 하나로 설치하였다. 당시 편제된 오류리 내의 행정리 구성을 보면, 1리는 봉화촌, 2리는 대촌, 3리는 오류동, 4리는 반월촌으로 배치되었다. 이후 1957년에는 5리 금호동이 신설되면서 오류리의 행정 체계는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

이후 행정 구역 변천은 계속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 소속의 법정동인 오류동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의 법정동인 오류동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검단 1동 소속이었던 오류동은 2013년 7월 5일, 서구 조례 제1192호에 따라 검단 5동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오류왕길동에 속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적 변화를 보면, 오류동은 본래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법정리가 아

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행정 개편과 현대 인천시 행정구역 재편 과정에서 점차 독립적 행정 단위로 정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월촌, 봉화촌, 대촌 등 주변 마을과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오류동은 현재와 같은 법정 행정 단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각 시기마다 행정 명칭과 관할 범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이처럼 오류동의 행정 구역사는 단순한 지명 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공간과 공동체 구조, 행정 체계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준다.

오류굴에서 돌고개를 넘어가면 봉화촌(烽火村)이 있는데, 이 마을 또한 조선시대 기록에는 법정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며 오류리의 행정리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봉화촌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편 백석산에 있던 조선시대 봉수대에서 유래했으며, 봉화를 올리던 장소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마을의 명칭도 봉수제와 역사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포군과 관련된 문헌 중 봉화촌이 법정리로 기록에 오른 것은 없다. 백석산 줄기를 서편으로 두르고 북쪽 드넓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달성서씨, 반남박씨, 고성이씨 등이 여러 대에 걸쳐 세거하고 있다.²⁾

대촌(大村)은 과거 다른 마을보다 큰 집들이 많아 ‘부자촌’이라는 의미로 불렸으며, 광주이씨(光州李氏)가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서는 법정리로 기록되지 않아 고잔리에 속한 자연촌으로 추정된다. 백석산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은 오래전부터 ‘모림’이라 불렸으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단봉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좌우 능선이 마치 감싸 안듯 이어지고 뒤로 낮은 언덕이 있어 명당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사업과 개발로 인해 마을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반월촌(半月村)은 마을 서편에 있는 섬 ‘반월도’의 이름을 좇아 붙은 명칭이라고 한다. 다른 설로는 이 마을을 안고 있는 산의 형국이 반월형이어서 반월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원래는 바닷가에 있었으나 서해안 제방 공사로 인해 육

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35-36쪽.

IV. 오류동

지화된 지역으로, 약 600년 전 청주한씨(淸州韓氏)와 경주이씨(慶州李氏)가 정착하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김포읍지(金浦邑誌)』에서는 고잔리에 속한 자연촌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이 하나로 합쳐져 현재의 오류리 지역을 이루었다.

금호동(金湖洞)은 6·25 전쟁 이후인 1957년, 월남한 실향민들이 갯벌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곳을 ‘엄나무곶’이라 불렀으며, ‘벗집’이라는 별칭도 함께 사용하였다.

이처럼 오류동과 주변 마을들의 지명과 전승은 단순한 지리적 표시를 넘어 과거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 종교적 신앙, 공동체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마을과 자연환경, 신앙의 상징물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지역이 개발과 도시화로 변모했음에도 전승과 지명 해석을 통해 당시 마을의 구조와 주민들의 문화적·종교적 삶을 엿볼 수 있다.

2. 오류동의 문화유산



〈지도 4〉 오류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백석산 봉수대 터³⁾

서구 오류동 봉화촌 뒤편에 위치한 백석산은 높이가 약 57m이며, 그 중간인 해발 47m 지점에 조선시대의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봉화는 나라의 큰일이나 왜적의 침입을 한양에 알리는 중요한 통신수단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연조가 신라 때부터라고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백석산 봉수의 초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봉수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54년(단종 2)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이다. 이 기록에서는 백석산 봉수가 현의 서북 20리에 위치하며, 통진의 약산(수안산)에서 봉수를 받고 부평도호부 관할의 축곶봉화에 전달하고 남쪽으로는 인천 문학산, 북쪽으로는 김포의 냉정산 봉수와 연결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 조선은 한양 천도(1394) 이후 세종대에 들어 봉수 체계를 국가적으로 정비하며 독자적인 통신망을 완성해 가던 때였다.

같은 지리지에서는 김포현에 속한 두 봉수 가운데 하나가 백석산 봉수라고 밝히며, 김포현 서쪽에 위치하고 북쪽으로 통진 약산, 남쪽으로 축곶봉수와 통한다고 적혀 있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은 백석산 봉수가 북쪽으로 수안산성, 남쪽으로 축곶산 봉수와 연계되어 김포 냉정산 봉수로 이어지는 구조였음을 기록한다. 백석산 봉수 기록은 1842년(헌종 8)과 1871년(고종 8)의 『경기지』 중 『김포군읍지』에서도 계속 확인된다.

또한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에 만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봉수대가 표시되어 있다. 『대동여지도』는 단순한 고지도가 아니라 측량과 표현의 과학성을 갖춘 근대 지도의 시초이다. 백석산과 축곶 정상부에 봉수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



〈사진 22〉 백석산 봉수대 터



〈지도 5〉 『대동여지도』의 백석산 봉수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봉수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뒤에도 1899년 『김포읍지(金浦邑誌)』에는 여전히 백석산 봉수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은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는 뜻에서 ‘봉화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근래의 조사 자료에서도 오류동 봉화촌의 백석산이 문헌 속 봉수 위치와 일치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옛 기록에 보이는 ‘김포 서쪽 20리 지점’이라는 설명, 실제 마을 이름이 ‘봉화촌’이라는 점, 능선에 흰 돌(백석)이 남아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 지점은 남쪽의 축곶봉수(약 8km), 북쪽의 수안산 봉수(약 5.75km)와 시야 상으로 무리 없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봉수 노선의 성격과도 부합한다. 반면 일부 자료에서는 백석동의 방성산을 봉수 후보지로 제시하지만, 거리·노선·지형 조건을 고려할 때 봉화촌 백석산이 더 설득력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인천 지역의 봉수 관련 기록을 정리한 『인천문화연구(仁川文化研究)』 창간호에서도 백석산 봉수를 오류동 봉화촌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으며, 고려 시기부터 존재한 연변봉수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축곶산과 수안산 사이의 봉수거리는 각각 약 8km, 5.75km이며, 당시 봉수 운영 인원은 봉수군 96명, 봉수장 1명, 감관 5명, 도감고 1명 등 총 103명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봉수대 실물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밭에서는 봉수군의 거주 흔적으

로 추정되는 기와편이나 토기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옛 봉수대가 있었던 자리는 사방이 트인 지형으로 지금도 봉수 설치에 적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변 지역이 정리·개발되면서 당시 모습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39번지 일원이며 현재 검단 1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마을에 남아있는 ‘봉우뚝’이라는 지명만이 봉수대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다.

2) 백석산 바위⁴⁾

단봉초등학교 서편에는 백석산(白石山)이 우뚝 솟아 있다. 백석산 정상 부근은 석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암석층으로 덮여 있으며, 특히 눈에 띄는 흰 바위가 산의 중간쯤에서 우뚝 서 있어 평범한 산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바위는 하얀색을 띠며, 그 형상이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선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길게 뻗은 바위는 마치 성곽의 외벽처럼 단단하고 웅장한 인상을 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민들은 백석산을 봉화촌의 주산으로 여기며, 마을의 수호와 안녕, 풍요를 기원하는 정신적·문화적 중심지로 삼았다.

백석산 정상에 오르면 주변 마을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탁 트인 조망 덕분에 전략적·문화적 가치 또한 높았다. 이 주변이 구역정리로 재개발이 되기 이전에 산을 기억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달이 밝을 때 백석산 위에 오르면 바다에 달이 비추어져서 그 모습이 잊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⁵⁾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은 이 산에 애정을 가지고 보호하며, 바위와 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바위를 부수어서 가져가기도 했으며, 30년 전에는 종교단체에서 바위를 훼손하기도 하여 지금의 바위는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5) 이○○ 선생님 구술 면담 (2025.11.21)

그 이전 모습보다는 낮아진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백석산의 바위와 산세는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정상에 바위가 용의 형상을 닮았다는 전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한 기운과 안녕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주었으며, 이 바위 주변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제의와 관련된 전통적 관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산은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와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였다. 봉화춘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백석산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농사와 생활, 제례 활동을 조화롭게 유지해왔다.



〈사진 23〉 백석산 바위 (1)



〈사진 24〉 백석산 바위 (2)

이처럼 백석산은 지형적 특성과 신비로운 바위 형상, 마을 주민들의 보호 의식과 신앙적 전승이 결합되어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과 바위는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기억을 담은 명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오류동 느티나무⁶⁾

오류동 느티나무는 백석산을 둘러싼 골짜기 안, 주변 지형보다 약간 높은 평지에 자리 잡아 마을을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보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 54번 안길 18(오류동 548-3번지)에 위치한 이 나무의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약 20m, 둘레는 30m에 달한다. 굵은 가지와 군데군데 남아 있는 커다란 웅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적 경관과 역사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느티나무는 약 300년 전, 배천조씨 문중이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할 당시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세대를 거치며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활과 신앙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나무와 관련된 여러 전설도 전해진다. 한 이야기에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강풍이나 비바람으로 큰 가지가 부러졌는데 그 가지를 주워 생활 도구를 만든 한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심하게 앓았다는 전설이 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약 60여 년 전 벼락이 쳐 큰 가지가 부러졌고, 한 사람이 이를 소 여물통으로 사용하려다 그 여물을 먹은 소가 배탈을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가지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졌으며, 이후 목수가 나무를 팔 것을 권했으나 주민들은 탈이 날까 두려워 팔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나무 속이 텅 비어 있어 반쯤 용이 된 이무기가 산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나무가 신성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⁷⁾

오류동 느티나무는 마을 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과거 주민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마을 의례와 제사를 올렸으며, 세대 간의 역사와 기억을 잇는 상징적 장소로 삼았다. 현재 나무 주변에는 하얀색 나무 울타리가 설치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단층 민가와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어 전통적 마을 풍경을 일부나마 유지하고 있다. 나무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5,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편』, 140~150쪽.

에게 역사적·문화적·자연적 가치를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느티나무 주변에는 수령 약 100~200년으로 추정되는 새끼 느티나무 2그루가 자라고 있어, 마을의 자연과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나무는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함께 담은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과거 비바람과 벼락으로 인해 가지가 부러진 설화는 주민들에게 나무가 지닌 신성함과 경외감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으며, 나무 속 이무기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상상과 신앙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나타낸다.

한편, 오류동 느티나무 주변에는 수령 약 100~200년 된 새끼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다. 특히 300년 된 느티나무는 왼쪽 가지가 부러져 큰 웅이가 생겼지만, 마을에서는 썰감이 부족할 때에도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 이는 나무가 마을의 수호수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여러 군데 웅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는 여전히 건강하게 생존하며 마을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현재 나무는 하얀색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으며, 마을 차원의 제사는 없지만, 주민들은 개인 차원에서 기복을 빌고 있다. 새끼 느티나무 또한 예로부터 제의가 올려졌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와 나무가 이어온 신앙적·문화적 전통을 보여준다.

오류동 느티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신앙,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존재이다.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역사적 중심지로서 마을의 정체성과 기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무는 지역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25〉 오류동 느티나무

4) 오류동 당산 소나무⁸⁾

오류동 당산 소나무는 대촌에서 안동포로 이어지는 길목의 임야 내, 오류동과 왕길동이 맞닿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소나무는 뿌리가 지면에서 뿔어 나오자마자 두 갈래로 나뉘어 연리근(連理根)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지표 1m 지점에서 갈라진 두 가지 각각의 둘레는 약 1m에 달한다. 나무의 높이는 약 15m, 전체 둘레는 3m이고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주변 잡목이 제거되어 관찰이 용이하며, 장대한 형태와 특이한 뿌리 구조로 인해 멀리서도 눈에 띄는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수로 기능한다.

이 소나무는 광주이씨 문중의 사유지에 속하며, 문중에서는 오랫동안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해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광주이씨 증시조 이언이 조선 선조 시기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방문하면서 가져온 소나무를 입향 후 이곳에 심었다고 전한다. 이후 소나무는 마을의 상징적 존재이자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 26〉 오류동 당산 소나무



〈사진 27〉 오류동 당산 소나무 (2025년 11월)

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소나무 아래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셋째 주 일요일 당산제가 거행되었다고 한다. 제사는 광주이씨 문중이 주관하였다. 돼지머리를 비롯한 제물이 올려지고 밤 11시가 되면 준비된 제단 주변에 나무를 쌓아 불을 밝히는 유교식 의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사에는 대촌마을 주민뿐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참여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소나무가 수호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나무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주변 잡목조차 떨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에 나무는 마을의 신앙과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례와 관련된 전승에서는 소나무가 신성시되어, 제사와 기복 의식의 중심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도 임야와 농경지와 어우러져 마을 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은 현대 도시화 속에서도 소나무 보호와 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당산제와 제례 문화, 문중과 마을 공동체의 협력, 그리고 신앙과 자연의 조화로 인해 오류동 당산 소나무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 27-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문중과 지역 주민의 보호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문헌

- 『경기읍지(京畿邑誌)』
- 『경기지(京畿誌)』
-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
- 『김포읍지(金浦邑誌)』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인천문화연구(仁川文化研究)』
-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5,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편』.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보고서

-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V



왕길동



文
化
遺
産



V. 왕길동

1. 왕길동의 연혁과 지명¹⁾

왕길동은 역사적으로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지명으로, 조선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당시 검단면 소속의 ‘왕길리(王吉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헌종 8년(1842)의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에서도 동일하게 ‘왕길리’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왕길리’의 ‘왕(王)’ 자는 본래 ‘임금’을 뜻했으나, 고종 8년(1871) 간행된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에서는 ‘왕성할 왕(旺)’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에 따르면, 조선시대 어느 유학자 혹은 관료가 마을 이름을 ‘임금 왕(王)’ 대신 ‘왕성할 왕(旺)’과 ‘길할 길(吉)’로 바꾸면 마을에 덕이 깃들고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왕길(旺吉)’이라는 이름이 주민 사이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왕길리는 1914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왕길리, 안동포리, 속사곶리를 합쳐 형성되었으며, 왕길 1리(대왕), 왕길 2리(소왕), 왕길 3리(안동포) 왕길 4리(사월)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1985년에 약수동이, 1992년에는 종현동이 분리되었고 1995년 3월에 검단면이 인천시에 통합되면서 왕길동은 행정동인 서구 검단동에 포함되었다. 이후 검단동의 분동과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는 행정동상 오류왕길동에 속하는 법정동이 되었다. 이러한 변천 과정 속에서도 왕길동이라는 지명에는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왕길동의 중심에는 대왕 마을이 있었다. 예전부터 ‘큰외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는 인근 7개 마을의 면사무소가 봉화촌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마을을 ‘외리(外里)’라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 이후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정리하면서 ‘대왕

1) 김포군, 1995, 『김포군 지명유래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

(大旺)과 ‘소왕(小旺)’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다. 대왕 마을은 광주이씨의 집성촌으로, 입향조는 도승지를 지낸 이언(李彦)이다. 이언은 임진왜란 이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송충이가 먹지 않는 소나무를 가져와 심었으며, 이 소나무들은 현재까지도 인근 8개 부락의 당목으로 신성하게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구획정리사업과 개발로 인해 마을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대왕 마을의 서쪽, 단봉초등학교 남쪽에는 소왕 마을이 자리한다. 예전에는 ‘작은 외리’로 불렸으며, 원래 고 씨(高氏) 선주민이 거주했으나 구체적인 내력은 전해지지 않는다. 약 400년 전 광주이씨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세거를 시작하였고, 약 300년 전에는 검단면 마전리에서 하동정씨(河東鄭氏)가 이주해 들어왔다. 소왕 마을은 뒤쪽의 낮은 구릉을 당산으로 삼고, 앞쪽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 개발과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마을의 옛 모습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또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로, 임진왜란(1592년) 당시 오류동과 왕길동 일대에는 고씨들이 8개 부락으로 나누어 거주했는데, 이로 인해 ‘고잔 8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주이씨 족보 기록에 따르면, 고씨들이 중국으로 피란을 가던 중 중선 3척을 건조했으나 선박이 난파되면서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왕길동 지역이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전략적·경제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왕길동과 그 주변 마을의 형성과 지명은 단순한 행정상의 구획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입향조의 역사, 자연환경과 신앙적 전승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왕과 소왕, 안동포 등 각 마을의 입향조와 가문, 제례, 당목, 소나무 등은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오늘날 법정동으로서의 왕길동은 도시화와 행정 구획의 변화로 옛 마을 풍경이 많이 사라졌으나, 전승과 문헌 기록을 통해 과거 왕길동 지역이 김포반도 내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8〉 소왕 조구내리



〈사진 29〉 대왕

사월(沙月)은 조선시대에 ‘속사우지’와 ‘거월성(巨月星)’ 두 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속사곶(束沙串)은 예전에는 ‘속사곶리’로, ‘속새곶이’에서 변천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마을이 처음 형성될 당시 바닷가였던 점과 관련이 있다. 주민들은 바닷가의 모래를 가마니에 담아 제방을 쌓아 농토로 이용했는데, 이 과정을 한자로 ‘속사곶’이라 표기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바닷가에 자주 자라던 속새라는 약초의 이름과 마을 지형을 결합해 속사곶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오늘날 마을이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변모하면서 초기의 지리적 특징과 옛 풍경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속사우지 남쪽, 백석동(白石洞)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바로 거월 마을이다. ‘거월(巨月)’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큰 달’을 의미하며, 여기서 달(月)은 밝음을 상징한다. 과거 이곳 주민들은 농사와 어로의 풍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천신제와 산신제를 지냈으며, 이러한 제천 의식에서 마을 이름이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안의 소지명인 ‘한뫼’, ‘광명산’, ‘달본동산’, ‘도당제고개’, ‘소댕이’ 등에서도 옛날 제사와 관련된 전통적 의미를 엿볼 수 있어, ‘거월’이라는 지명이 단순한 위치를 넘어 농업과 어업의 번영,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고가차도와 매립지 도로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옛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속사(束沙)’의 사(沙)자와 ‘거월(巨月)’의 월(月)자를 합쳐 ‘사월(沙月)’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광명산 끝자락에 백사장이 있어 배가 닿던 곳이었으며, 해와 달이 지는 모습을 보고 ‘모래 사(沙)’와 ‘달 월(月)’자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속사’는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서 쌀감을 묶어 공물로 바쳤다는 의미의 ‘속초(束草)’에서 유래하며, ‘거월’은 산 밑 마을에서 달이 떠오르면 크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문헌상으로는 1899년 『김포읍지』까지 ‘속사곶리’라는 이름이 존재했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속사곶과 거월이 합쳐져 사월리가 되었다. 사월리는 당시 왕길리에 소속되었으며, 현재는 행정동 상 오류왕길동에 속한다. 마을 선주민으로는 속사곶에 약 400년 전 안동권씨(安東權氏)가 입향하여 정착하였고, 거월 마을에는 공주이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은 뒤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 넓은 개펄이 펼쳐져 한적하고 아늑한 농촌 마을의 모습이였다. 과거 주민들은 산신제와 천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으며, ‘소맹이’, ‘할미산’, ‘도당제고개’, ‘광명산’, ‘달본동산’ 등의 지명이 지금도 전통과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 매립지, 도로, 공장 건설 등으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의 옛 풍경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 왕길동의 문화유산



〈지도 6〉 왕길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안동포 터²⁾

안동포는 본래 ‘부자가 번성하며 사는 갯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과거에는 ‘부성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마을의 이름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입향 조상의 영향, 그리고 어업 중심의 전통이 녹아 있다. 일부 전승에서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안동포’라는 이름이 형성되었다고 전하며, 또 다른 기록에서는 ‘안동개’ 혹은 ‘안동포리’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처럼 마을 명칭은 시대와 사람, 입향 가문, 어업 활동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변화와 전승을 거듭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안동포리는 조선 정조 13년(1789)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안동포리(安東浦里)’라는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

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靑丹의 歷史와 文化』;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김포마루』, 2024. 04. 17, “우리동네 옛날이야기 ... 잊힌 우리의 땅 ‘안동포(安東浦)’” (<https://gimpomaru.gimpo.go.kr/992>)

합 과정에서 왕길리 소속의 행정리로 편제되었으며, 현재는 검단 1동에 속한다. 안동포는 과거 김포반도 내에서 중요한 해상 포구로 기능했으며,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김포 지역의 대표적인 어장이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는 전진 포구로서 군수와 민간 수송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등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양 중심의 수운망과 내륙 정기시장을 연결하는 전환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³⁾ 내륙에서는 오나리장과 연결되어 김포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양으로 운송하고, 반대로 인천과 해양을 통해 생필품과 수산물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중간 거점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안동포는 지역 경제와 물류망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진 30〉 1950년대 안동포 고깃배 모습(김병학님 제공)

어업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였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기철에는 중선을 이용해 연평도까지 출어하여 만선을 거두어 귀향하였으며, 민어 철에는 어린아이 키만 한 민어를 잡아 오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출항에 앞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용신굿, 즉 뱃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으며, 마을 중심에는

‘당집’이 자리해 풍어제와 마을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졌다. ‘안동포 풍어제’는 1992년 마지막으로 치러질 때까지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적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안동포의 갯벌은 매우 광활하여 굴, 조개, 방게 등 다양한 어패류가 풍부했다. 포구 주변에는 조기 건조장과 마을 식수용 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김포 읍과 주변 마을의 사람들까지 생계를 위해 몰려들었다. 마을은 자연스럽게 ‘부

3) 전중환, 2017, 「근대이행기 조강 연안의 포구 성쇠와 포구 네트워크 -김포반도의 거점 포구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2호, 191쪽.

성개'라 불리며 번성하게 되었으며, '조구내리'와 같은 소지명은 조기 건조장 중심의 마을 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중요한 지명으로 남아 있다.



〈사진 31〉 1960년대 안동포 염전
(유춘길님 제공)

안동포는 어업뿐 아니라 제염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인근 갯벌에는 과거 넓은 염전이 분포하여 소금 생산이 지역 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었다. 제염업에 종사하는 염부들은 가족과 함께 사택에서 거주하며 여름의 습기와 더위,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소금 생산에 힘썼다. 생산된 소금은 지역 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로 운반되었으며, 이는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당시 지역 상인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염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와 공장화로 사라졌으나, 주민들의 삶과 경제 활동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제례 문화 또한 안동포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당제와 풍어제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당제에 사용되던 향나무와 소나무는 신목으로 간주되었으며, 제사 시 제관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축원을 진행하였다. 현재 이 당제 관련 나무들은 왕길동 595-5번지에 남아 있으나, 당집과 굿은 수도권 매립지와 아파트 개발로 대부분 사라졌다.

오늘날 안동포 자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64-111번지 일대(현 안동포사거리 부근)로 추정되나, 수도권 제1매립지와 산업단지, 도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해양 중심 포구로서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 어르신들의 구술과 역사적 문헌, 마을 지명을 통해 안동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포는 김포반도 내에서 수운과 어업, 농산물 유통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었으며, 풍어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 문화가 공존한 전형적인 해안 마을이었다. 포구

와 염전, 갯벌과 제례 의식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어우러진 안동포의 정취는 안동포를 김포 지역에서 번성하게 만든 이유임을 알게 한다.

2) 왕길동 염전 터⁴⁾

안동포 마을은 과거 검단지역에서 제염업이 가장 활발했던 곳 중 하나로, 넓게 펼쳐진 갯벌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한때 이곳 염전에는 약 15명의 염부(鹽夫)가 근무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염전 근처에 마련된 사택에서 생활했다. 사택은 길게 이어진 단층 구조로, 각 방의 크기는 약 2.4m 남짓에 불과했다. 한 가족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여름철의 습기와 더위, 겨울철의 찬바람 속에서도 소금 생산에 매진해야 했다.

염부들이 생산한 소금은 안동포 주변 마을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등지로 운송되어 판매되었다. 당시 교통 여건은 열악했기 때문에, 소금 운반은 마차나 배를 이용하여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운송은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수익원이 되었다. 염전 주변에는 소금 창고, 작업장,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도수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염부들이 증발지와 결정지를 오가며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김포군지』(1993)에 따르면, 검단지역에서는 1890년대부터 옛 오류리와 왕길리 연안에서 자염 생산이 시작되었다. 생산 과정은 갯벌에 막을 쌓아 굴짜지와 백회를 섞어 큰 가마를 만들고, 그 안에 간수를 부어 장작불을 지펴 소금을 얻는 방식이었다. 간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콩알이나 밥풀을 넣어 뜨는 정도를 확인했고, 적정 농도가 되면 2일 정도 불을 지펴 자염을 완성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흙가마가 철판가마로 대체되었으나, 기본적인 자염 생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검단 지역에는 당시 15개의 생산 가마가 운영되었으며, 가마당 1회 생산량은 약 15가마니였다.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黔丹의 歷史와 文化』;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광복 이후 1950년대 중후반에는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오류리 142ha, 왕길리 10ha 규모의 염전이 건설되었다. 초기에는 소금을 대바구니에 담아 막대 양 끝에 달고 어깨에 메고 운반했으나, 이후 외바퀴 손수레와 소규모 레일을 설치한 운반차가 도입되면서 운반 효율이 높아지고, 이전처럼 소금을 떨어뜨리는 사고는 크게 줄었다. 1975년 당시 오류리 염전의 생산량은 67,000가마니, 왕길리는 6,000가마니로 기록되었으며, 왕길리 안동포의 사유 염전도 1958년에 설립되어 10ha 규모에서 6,000가마니를 생산하였다.



〈사진 32〉 안동포 염전터

염전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생활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염부들은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생산과 운반, 저장까지 공동체적 활동에 참여했다. 염전 노동은 날씨와 조수, 갯벌 상태 등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되었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면 소

금 생산에 실패하기 일쑤였다. 또한 제염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실용적 노하우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지역 내에서 세대를 이어 전수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안동포 염전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는 산업단지와 난립한 공장지대로 바뀌었다. 광활했던 소금밭과 염부들이 땀 흘리며 밭로 돌리던 수차는 이제 역사 속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현재는 염전의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옛날에는 이곳이 하얀 소금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때 안동포가 제염업의 중심지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60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이처럼 안동포의 염전 역사는 단순한 산업적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 사회 구조, 공동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소금 생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공

동채, 제염 기술의 전수, 운반과 거래를 통한 경제적 활동, 염부와 가족들의 고단한 생활 모두가 당시 안동포의 역사적 풍경을 구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비록 현대적 시설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과거 모습은 사라졌지만, 염전과 갯벌의 존재는 지역 정체성과 기억 속에 살아 있으며, 과거 안동포가 한때 제염업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3) 안동포 당제 향나무·소나무⁵⁾

안동포 마을의 당제와 관련된 향나무와 소나무는 한때 번성했던 포구였던 왕길동 안동포의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였다. 이 나무들은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堂祭) 의식에서 '당나무'로 활용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 나무들을 신목(神木)으로도 여겼다. 안타깝게도 당제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 및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1992년 이후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당제 향나무와 소나무의 현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301번길 24-6(왕길동 595-5번지)이다. 나무들의 정확한 수령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형태나 크기를 기록한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안동포 당제의 형태와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제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이 모시는 신이 뱀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뱀과 돼지는 상극이라 여겨졌으며, 뱀은 돼지를 해칠 수 없지만 돼지는 뱀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의 신을 존중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음력 정월 14일 정오에 제사를 지냈다.

과거에는 제관을 주민 중에서 선출했으나, 이후에는 노인회장이 제관 역할을 맡았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술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떡은 마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만들어 기부했다.

제관은 제사 며칠 전부터 부정한 일을 피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전통적으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33〉 안동포 당제 행나무·소나무

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나, 이후에는 제사 전에 목욕을 통해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제사 당일에는 마을의 남자들이 참여하고, 축문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단순히 “도당할아버지, 할머니, 마을에 아무 탈 없게 해 달라”는 식으로 기원하였다. ‘인줄(금줄)’은 제관의 집에만 걸며, 당 주위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본래 안동포의 당집은 현재 동아연립(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301번길 24-6)위치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이곳이 ‘당산’이라고 불렀

다. 빌라가 건설되면서 당은 다른 자리로 옮겨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원래 당집은 고깔 모양으로 지어져 열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으며, 내부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매년 10월이면 지붕을 새로 갈아주며, 지붕을 고정하는 새끼줄은 다른 지방과 달리 오른새끼로 끈 전통을 유지했다. 현재의 당은 본래 당집 기능을 대부분 상실했으며, 크기도 터주보다 약간 큰 수준에 불과하다.

안동포에서는 과거 음력 11월에 날을 잡아 대동굿을 열었다. 굿을 집전하는 당근네, 즉 무당은 주로 오류동 출신이었으나 필요에 따라 검단이나 인천 등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굿 날짜가 정해지면 마을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내며, 때때로 배를 부리는 주민은 웃돈을 더 내기도 했다. 굿은 이틀간 진행되었고,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굿의 순서는 마을 터에서 시작해 당집, 그리고 우물 순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되었다. 제물로는 소머리, 삼색 과일, 막걸리 등이 사용되었으며, 굿이 끝나면 대동마당에서 음복을 하며, 이때는 여자들도 참여했다.

안동포에서 마지막으로 대동굿이 열린 것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기 전으로 전해진다. 이 굿은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

며, 당시 마을 공동체의 연대와 전통적 신앙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 기록된다. 오늘날 남아있는 향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당산의 흔적은 이러한 전통을 상징하며,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고문헌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김포읍지(金浦邑誌)』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종한, 2017, 「근대이행기 조강 연안의 포구 성쇠와 포구 네트워크 -김포반도의 거점 포구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2(2): 187-209.

언론

『김포마루』

VI



당하동



文
化
史
遺
産



VI. 당하동

1. 당하동의 연혁과 지명¹⁾

옛날에 제림산(霽林山)에 당(堂)이 있었고 당 아래 부락이 위치하였다 하여 ‘당하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당이 있는 마을, 원당리(元堂里)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당하리(堂下里)’라 불려온 것이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부터 지명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는 노장면 당하리로 법정리였다가 1842년(현종 8)의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의 기록을 보면 법정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1871년(고종 8)의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에는 기록되어 있고 1899년(광무 3)의 『김포읍지(金浦邑誌)』에는 다시 삭제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노장면 당하리 일부와 죽저리, 독정리를 병합하여 검단면 소속의 당하리로 재편하였고 1리 독정, 2리 신기, 3리 광명, 4리 죽저의 행정리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당하동은 독정, 죽저, 광명, 신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소속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의 법정동인 당하동이 되었고, 2005년 9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소속의 당하동 중에서 독정을 제외한 법정동들과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 3동으로 편제되었다. 정부에서 2007년 불로동, 당하동, 원당동 일원의 토지 11,239㎡를 호구 6만 6천 세대의 신도시로 지정하여 도로 건설 등 기반 시설 일부와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검단 4동의 신설로 인해 일부 지역을 검단 3동, 4동으로 나누었다. 2008년 검단 4동의 신설로 인해 당하동의 일부는 검단 3동에, 나머지는 검단 4동에 속하게 되었다. 2018년에 검단 4동의 명칭이 당하동으로 변

1) 『호구총수(戶口總數)』;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5,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계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경되었고, 2019년에 당하동에 속해 있던 마전동 일부 지역이 독립된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지금의 당하동이 되었다.

독정마을은 또 다른 이름인 ‘독정이’, ‘독쟁이’라고도 불렸다. 약 400여 년 전 좌랑(佐郎)을 지낸 퇴촌(退村)의 자(子) 광산김씨(光山金氏) 달도(達道)가 입향조로, 후손들이 17대를 세거해왔다. 광산김씨는 김알지(金闕智)의 후손인 신라 신무왕(神武王)의 아들 흥광공이 시조이다. 1914년 노장면 독정리에서 검단면 당하리가 되었다. 마을의 중심부인 건넛말(양달말) 뒷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끝부분, 즉 건넛말 입구에서 마을회관을 향한 오른편 언덕 위에 왕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을의 정자목이며 그곳에 독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독정(獨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소나무는 500년 이상 된 거목이었으나 광복하던 해에 고사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 마을의 한자 지명을 ‘독정리(獨井里)’라고 기재했었다. 독정마을은 과거에는 산과 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산들이 사라지고 마을의 그 규모 역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족저리(足儲里) 마을은 약 전주이씨 회령군파가 약 400년 전 입향하여 형성된 마을로, 당하리 인근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윗말, 넘말로 구분되어 있다. 원래 노장면 족저리로 1871년(고종 8)의 『경기지』 중 『김포군읍지』에 법정리로 등재되었으나 그 후의 문헌들에는 법정리로서의 족저리는 보이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당하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11통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 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 3동으로 편제할 때 족저도 검단 3동(현 원당동)이 되었다.

족저리 마을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 마을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며 근면, 성실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집집마다 저축을 많이 하여 ‘돈에 발이 문힐 정도로 부자마을’이었기 때문에 ‘저축할 저(儲)’를 써서 ‘족저리(足儲里)’로 불리

왔다고 전해진다. 한편,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을 쌓았으므로 족저(足儲)의 의미는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마을 즉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족(足)’은 그 훈(訓)이 ‘발’이므로 본래의 뜻인 인간의 다리 또는 만족이나 풍족과는 관계없이 ‘계(系)’의 뜻으로, 역시 ‘천신제(天神祭)’를 지내는 마을임을 나타낸다. ‘저(儲)’도 ‘담’이나 ‘동산’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단(祭壇)’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족저마을도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마을’ 또는 줄여서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이란 뜻이 된다.

신기(新基)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는 희령군(熙寧君)파로 11대 조인 향영(尙榮)이 입향조이다. 예전에 족저에 정착했다가 9대조 때 신기마을로 새로 터를 잡아 이주하였다. ‘새로 터를 마련해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여 ‘새털말, 새텐말’이라 불리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신기(新基)’라 하였다. 옛 문헌에 신기마을은 법정리로 등재된 적이 없고, 당하리에 속하는 자연촌(自然村)이었다. 1991년 3월 1일 이후 검단동의 9통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소속이었던 신기도 원당동 전체와 통합하여 검단 3동으로 편제되었으며 이후 검단 3동이 원당동으로 개칭되면서 현재는 행정동 상 원당동에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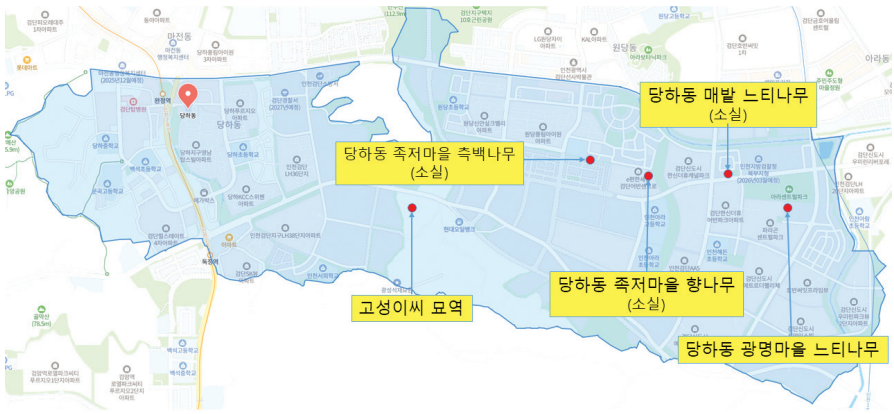
광명(光明)마을은 크게 광명(光明)과 매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마을은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청송심씨(靑松沈氏)가 300여 년 전에 이 마을로 이주하면서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매밭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해왔다. 안동권씨는 경순왕 제위 시절 태사공 권행(權幸)이 시조로, 현종 말년에 권이도(權以道)가 광명마을에 입향해 오면서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광명은 또 다른 이름으로 ‘괡맹이, 괡메이, 텃굴’로도 불렸다. 『김포군지명유래집』에 의하면 비가 갠 뒤에 제림산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아침햇살이 유난히 밝아 ‘광명(光明)’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괡맹이’나 ‘괡메이’는 ‘광명’의 변음이다.

고대 지명어에서 ‘밝다’라는 뜻으로 ‘광(光), 명(明)’이나 음이 ‘밝’과 유사한 한자

들인 ‘백(白), 박(朴), 발(鉢), 불(不), 팔(八)’ 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글자가 들어간 지명을 가진 마을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광명(光明)마을은 명칭 자체가 ‘밝 사상’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제림산에서 매년 시월 초이튿날 산 고사, 즉 천신제(天神祭)를 지내 온 전통을 갖고 있어서 ‘광명’은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이란 뜻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제의 형태는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변화에 대한 위안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이웃 마을에 풍요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서구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음력 시월에 마을제를 지내오고 있다. 최남선(崔南善)은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에서 우리 민족 고유사상의 원천을 광명(光明)의 뜻을 가진 고어(古語) ‘밝음’ 이라 보고 그 의미를 ‘천(天), 일(日), 신(神)’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조상들이 해 뜨는 동방의 나라를 찾아 이동해 온 스스로를 ‘밝’ 이라 했으니 신명(神明)의 자손이란 우리 고유의 얼이라 보았다. 광명마을의 지명 외에 서구 검단지역의 많은 지명에 하늘에 제를 지내는 곳이란 명칭이 많이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지(三國志)』 마한편(馬韓遍)의 소도(蘇塗) 기록부터 삼국시대의 동맹(東盟), 무천(舞天), 영고(迎鼓)와 같은 제천의식들은 고대국가 시대로부터 이어져 농경사회에서는 씨 뿌릴 때와 추수가 끝난 후에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마을 전체의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해왔다. 이러한 형태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소도는 사라지고 천신제(天神祭), 산신제(山神祭), 산치성, 산제사, 동제(洞祭), 서낭제, 용왕제(龍王祭)와 같은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생활신앙으로 전통 속에 살아 있으면서, 마을의 이름이나, 산천 경작지 등 주변의 모든 지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재가 되었다고 본다.

2. 당하동의 문화유산



〈지도 7〉 당하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고성이씨 묘역²⁾



〈사진 34〉 고성이씨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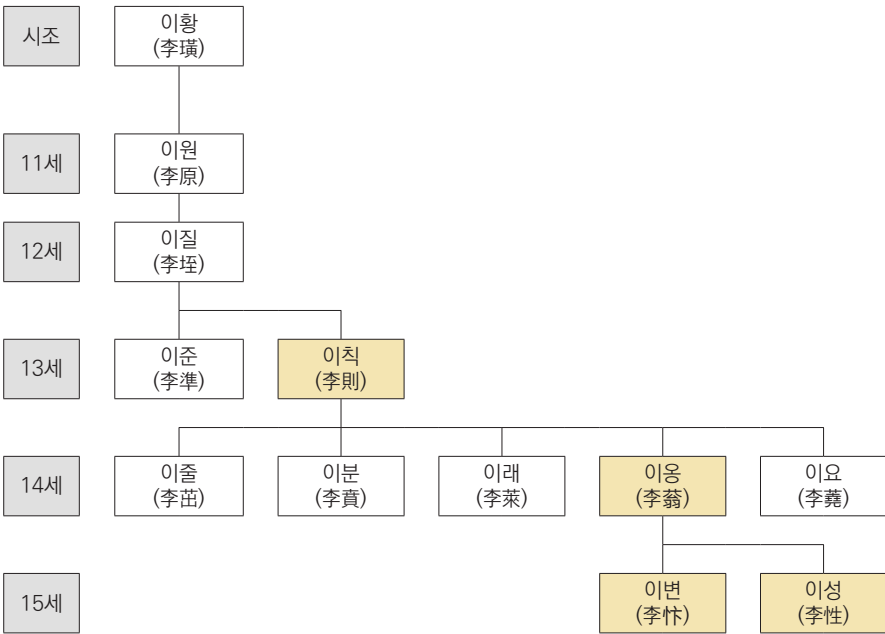
고성이씨 묘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16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고성이씨 좌윤공파 정숙공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성이씨는 고려시대 거란 침

입 때 공을 세워 철령군(鐵嶺君), 고성에 봉해진 이황(李璜)을 시조로 한다. 11세 용헌공(容軒公) 이원(李原)은 조선 전기에 대사헌·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12세 좌윤공(左尹公) 이질(李埴)은 한성좌윤을 역임하였다.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은 본래 16세기 초반 동구 화수동 37-2번지 일대에 조성되었는데, 정숙공(貞肅公) 이척(李則)이 죽자 그가 장전(莊田)으로 관리해 오던 곳

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에 이칙의 묘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묘역이 조성되었다. 1936년 인천부의 부역 확장 계획에 따라 화수동에 있던 묘역은 정숙공의 증손자인 이희(李曦), 이돈(李墩) 형제의 묘역이 있는 서구 석남동 산50번지로 이장되었다. 1970년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석남동 묘역을 또 이장하게 되자, 현재의 위치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64번지로 이칙(李則)과 이옹(李翁), 이변(李忭), 이성(李性) 묘가 이장되었다. 고성이씨 가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성이씨 가계도

이칙은 1462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주요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 평안도관찰사, 지중추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480년 대사성으로 교학에 힘쓰다가 전라도관찰사로 전임되자 유생들이 수 차례 그의 유임을 상소한 바 있으며, 1488년 대사헌으로 재임했을 때 외척인 임사홍(任士洪)을 등용하려던 성종에게 이의 부당함을 간언하기도 하였다. 이칙의 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부에서 서쪽으로 17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묘가 처음 조성

된 동구 화수동 일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용재집(容齋集)』에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봉분은 이칙과 정부인 안동권씨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갈과 묘비, 상석과 향로석, 석수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이용은 아버지는 정숙공 이칙이고, 어머니는 정부인 안동권씨이다. 군수 정광좌(鄭光佐)의 딸 동래정씨와 혼인하여 이변(李忭)과 이성(李性)을 낳았다. 이용의 관직 생활은 아버지인 이칙의 묘갈명과 이용 본인의 묘비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파악될 따름이다. 그는 세자익위사 부수(副率)를 거쳐 어모장군에 이르렀다. 현재 봉분은 이용과 숙인 동래정씨, 숙인 용인이씨와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이성의 아버지는 이용이고, 어머니는 정광좌의 딸 동래정씨다. 이성은 큰아버지인 이래의 계자(繼子), 대를 잇기 위한 양자로 들어갔다. 부인은 숙부인 정선전씨(旌善全氏)이다. 관직이 순안현령에 이르렀다는 기록 이외에 다른 관직 활동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봉분은 이성과 숙부인 정선전씨와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상석 왼쪽에 석물이 하나 놓여 있는데, 기존에 향로석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2) 광명마을 느티나무³⁾

광명마을은 서구 당하동의 제림산(濟林山, 98m)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밭다’라는 의미를 차용한 한자어 광(光), 명(明)의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괭매이’, ‘광매이’, ‘텃굴’, ‘느티나무말’, ‘본동’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독립적인 법정동이 된 적은 없었으며 당하리에 속했던 자연부락으로 크게 ‘광명’과 ‘매밭’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행정동 상 당하동에 속해있다. 이밖에 이 마을의 소지명으로 ‘솔터구석’, ‘청룡부리’, ‘마루티모퉁이’ 등이 있는데 유서 깊은 전통을 간직한 곳임을 추정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35〉 당하동 광명마을 느티나무



〈사진 36〉 광명마을 느티나무 표지석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이튿날 새벽에 제림산(김묵산·기밋산·제미산) 산마루에 천막을 치고 산고사를 지내왔었다. 당시 산 정상 부분에 당우물이 있었고 제물을 차리기 적당한 바위에 제단을 차려 전통의 제례를 지냈는데, 당시 제일 에 맞추어 이곳 우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물로 조라술을 담근 뒤 제단 밑에 묻고 터줏가리를 씌워 놓았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이때 제의 형식은 유교식 절차에 따라 산고사를 지냈는데 마을의 평안과 재해 방지, 농사의 풍작 등을 기원하며 축원문을 낭독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과정 속에 치러졌다. 큰 산고사에서 마을 공동의 축원문 소지를 비롯해 주민 각자의 소원지를 올리고 내려와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제의를 드렸다. 이곳에서도 제의가 끝나면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준비한 술과 음식을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누는 음복(飮福)을 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이 마을의 작은 당인 광명마을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구 보호수(4-8-5)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는 3백여 년 전 인근 대곶면 약암리에서 살던 청송심씨들이 이주하여 1647년 4월에 식수를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300여 년 동안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나무는 그 높이가 약 20m, 둘레는 약 4.8m에 이르며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사계절의 특색이 뚜렷하다. 이 느티나무 외에도

마을 원로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몇 그루의 느티나무가 더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에는 심한성(沈漢成)의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는데, ‘효자병절교위 심한성지려(孝子秉節校尉沈漢成之閭)’ 라는 현판이 있었다.

심한성의 자는 정숙(貞淑)이고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관직이 병절교위(秉節校尉)였다. 평소 부모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던 심한성은 부모님이 병으로 자리를 보전하자 부모님의 약을 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간구했다고 전해진다. 약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것은 기본이요, 한겨울에는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수박을 찾아 떠났다고도 전해진다. 이외에도 꿩알, 잉어 등 귀한 음식을 구해다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의 대변을 맛보아 두 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렇게 극진한 그의 효심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져 1887년 당하동 광명마을에 효자정려가 내려진 것이다.

정려(旌閭)란 왕의 뜻을 전하거나 왕명을 받은 자가 지니던 깃발 혹은 현판을 말하는 정(旌)과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문을 뜻하는 려(閭)가 합쳐진 단어로 흔히 정려각(旌閭閣)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살던 고을에 세우는 것으로, 정려를 받은 각 고을과 문중은 정려를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레 여겼다. 정려의 편액에는 충(忠), 효(孝), 열(烈)과 직함, 이름 등을 새겼으며, 정려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나 역을 면제해주고 관직을 주는 등 국가적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예조에서 입안(立案)을 내린 이후, 한때 많은 문신들이 이곳을 찾아 시문을 남겼는데, 효자 심한성이 부모에 대해 극진한 예를 갖추고 효성을 다했다는 내용들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시문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1919년 전후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195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받은 심영택(沈永澤, 1869~1949)도 이 마을 출신이었다. 이렇듯 이곳 광명마을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인물과 나라를 위해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을 한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마을이다.

도시화 개발 이전의 광명마을에서는 느티나무 아래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지

탱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마을회관 앞에 자리하던 느티나무 정자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활발한 마을 회의와 부녀회 활동을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였다. 광명마을의 햇살을 오롯이 받아낸 이 느티나무는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든든한 존재였으며, 언제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76(당하동 351번지)이다.

3) 매밭 느티나무

광명마을에는 ‘매밭’이란 지명이 남아있다. 광명마을 앞산이 마치 평이 기어가는 형국이어서 풍수설에서 말하기를 ‘평을 이기는 것이 매이므로 매와 관련되는 지명이어야 마을이 평안하다’ 하여 ‘매밭’이라 하였다고 한다. 한편 『김포군지명유래집』에서 ‘밭’은 지명에서 반드시 ‘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고유 명사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 ‘마을’의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매’는 ‘뫼’ 즉, ‘산’이므로 ‘매밭’은 ‘뫼밭’, 곧 ‘산마을’이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명과 매밭의 지명은 문헌상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노장면 당하리

의 자연촌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시 당하리의 행정리가 되었다.⁴⁾

당하동 매밭 느티나무는 족저마을에서 광명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매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이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는데 흔히 마을 어귀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자나무이기도 하다. 역센 즐기는 강인한 의지를, 고루 퍼진 가지는 조화된 질



〈사진 37〉 당하동 매밭 느티나무 (현재는 소실)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162-163쪽

서를, 단정한 잎들은 예의를 나타내며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나무로 널리 심어온 나무 중 하나이다. 당하동 매밭 느티나무는 비지정 보호수로 나무의 둘레는 4.8m, 높이는 20m이며, 지표로부터 약1.5m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소실 이전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49(당하동 1246-8번지, 구 지번 당하동 305번지)이다.

4) 족저마을 측백나무⁶⁾



〈사진 38〉 당하동 족저마을 측백나무 (현재는 소실)

측백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나무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을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해 보호·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 외 단양, 안동, 언양 지역에 주로 자생하며, 중국에도 분포해 있다고 한다. 측백나무는 소나무와 더불어 선비를 상징하며 천 년을 사는 장수

나무로 무병장수와 행복·번영을 기원하는 나무로 보호하고 가꾸었다. 이는 사시사철 늘 푸르름을 잃지 않고 올곧게 서쪽으로만 가지를 넓히는 모습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측백나무는 주로 왕가(王家)의 묘역, 상류층의 관상용, 사당, 사찰, 정원 등에 많이 심어왔다. 또한 선비들은 글을 쓸 때 먹물에 측백나무의 잎 또는 열매의 즙을 첨가하여 그 향을 즐겼다고 하니 상층 신함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또한 한방과 민간에서 나무의 잎과 줄기·열매를 약재로 쓰는데, 자양강장제, 관절통, 기침·가래, 배가 아플 때 등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해왔다. 서구에 있는 측백나무로는 당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00쪽.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02-104쪽.

하동 죽저마을 측백나무(비지정 보호수)와 대곡동 황곡 측백나무(비지정 보호수)가 있다. 당하동 죽저마을 측백나무는 발산초등학교 동남쪽 고산후로 78번 안길 죽저마을에서 광명마을로 향하는 길목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1-7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5) 죽저마을 향나무⁷⁾



〈사진 39〉 당하동 죽저마을 향나무 (현재는 소실)

당하동 죽저마을의 향나무는 예로부터 매밭에서 죽저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가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죽저에서 광명부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있던 이 향나무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가 되었고, 때로는 마을의 상징적 기둥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개인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장소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이 죽저마을에는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여겨지던 수호목이 존재했는데, 바로 당하동 죽저마을의 측백나무와 향나무이다.

300여 년 전 을축년 대홍수 때 떠내려와 뿌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측백나무와 약 300년 된 향나무는 마을의 정신적 기둥으로서 오랫동안 신성시되었다. 소실 이전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31-3번지이다.

7) 김영순 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참고문헌|

고문헌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김포읍지(金浦邑誌)』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VII



원당동



文化
遺
産



VII. 원당동

1. 원당동의 연혁과 지명¹⁾

1789년(정조 13) 간행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김포군 노장면 원당리라고 기록된 문헌을 통해 ‘원당(元堂)’이라는 명칭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원당(元堂)’이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천신에게 제사하는 신당이 있는 마을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노장면의 북쪽 지역인 고산리, 고산하리, 발산리를 기존의 원당리에 통합하였고 마산면, 노장면, 검단면을 검단면으로 통합하면서 원당리는 이곳에 소속되었다.

검단면은 광복 이후부터 1995년 이전까지 김포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며 검단동으로 개칭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2002년 1월 1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동인 검단동은 분할되어 검단 1동과 검단 2동이 되었고 2005년 9월 1일엔 검단 1동에서 검단 3동이 분동되었다. 2006년 9월 1일에는 검단 1동에서 검단 4동이 분동되었고, 2013년 9월 1일에는 검단 1동에서 검단 5동이 분동되었다. 이러한 편제 속에 법정동으로서의 원당동은 2002년 검단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뉘면서 2동에 편입되었다가, 2006년에는 검단 3동의 신설되면서 3동으로 편입되었다. 2018년 7월 1일에 검단 3동의 명칭이 원당동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원당동에 속한 마을들로는 원당(元堂), 발산(鉢山), 고산후(高山後) 등이 있다. 여기서 원당(元堂)은 ‘원데이’라고도 하며 원당동의 으뜸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발산(鉢山)은 남쪽만 트이고 동, 서, 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이 마치 바리때와 같다고 하여 예로부터 ‘바리때’로 불리오다가 한자식으로

1)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76-79쪽, 146-150쪽.

2) 1842년(헌종 8)에 출간한 『경기지(京畿誌)』의 내용에서도 동일하다.

고칠 때 ‘바리 발(鉢)’자를 써서 생긴 지명이다. 고산후(高山後)는 옥계봉에서 송우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고산이라 불렀고, 고산 뒤에 형성된 마을이라 ‘고산뒤’라고 부른 것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라고 한다.

이들 마을에 속한 지명들을 자연환경 및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원당(元堂)의 경우,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예전부터 산에 꽃땀이 많다고 하여 ‘뱀산’ 혹은 ‘배미산’이라고 불린 옥계봉, 원당에서 장릉으로 통하는 고개로서 예부터 서낭당이 있어서 생긴 ‘서낭당고개’ 등이 있다.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원당과 능굴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인 ‘능굴고개’, 서낭당 밑의 골짜기인 ‘원터굴’, 장릉골에서 시작된 마을 앞에 있는 들인 ‘능앞들’, 능굴고개의 원당쪽 아래인 ‘조축머리’ 등이 있다.

둘째로 발산(鉢山)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장릉이 조성된 다음 능의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골’ 및 ‘능굴’로 불렸던 ‘능곡’, 바리미에서 능굴에 이르는 산줄기를 북에서 남으로 바라볼 때 장구처럼 생겼다고 하는 ‘장구산’, 송우산의 앞부리로 소나무가 우거져있어서 불린 이름인 ‘솔모랭이’, 등이 있다.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예전에 대장간이 있던 곳인 ‘대장간모퉁이’, 대장간모퉁이 서편 골안에 있는 마을인 ‘아낙말(안약말)’, 용머리와 모장대 사이의 마을인 ‘셋말’, 바리미 뒷산의 산줄기인 ‘모장대’, 마을 입구의 동쪽 산의 부리 끝인 ‘말무덤계’, 바리미의 가장 북편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용바위가 있던 곳인 ‘용머리’, 모장대 너머 동북편의 들논인 ‘뒷들’, 마을 앞 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내 부근 일대의 들인 ‘긴논틀’, 능굴 동북편의 마을 뒷산인 ‘가마산’, 마을 앞 들에 있던 큰 우물인 ‘서못’, 능굴과 창신초교 사이에 있는 ‘송우산’, 능굴과 창신초교를 왕래하는 고개인 ‘내건너고개’, 능굴 안 서북편 넓고 평평한 골이며 예전에 태릉이 있던 곳이라 전해오는 곳인 ‘웃목구석’ 등이 있다.

셋째로 고산후(高山後)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옛날 노 씨네 처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을 당했기 때문에 불린 ‘호사냥’, 묘지가 많이 있었기 때

문에 붙인 이름인 ‘북망산’³⁾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송장산’, 가마골 즉 큰 골의 뜻을 가진다는 ‘가막골’ 등이 있다. 지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옥계봉으로 부르는 주봉으로 옛 봉릉사였던 금정사가 있는 산인 ‘금릉산’, 고산 뒤 사이에 있는 높이 124m의 산인 ‘앞산’, 송장산 끝부분에 있는 작은 봉우리인 ‘쪽박산’⁴⁾, 마을 뒤 서편에 있는 시월 초이튿날 산치성을 올리는 산인 ‘뒷산’, 서당 냇이 있었던 목지로 넘어가는 고개인 ‘숫당고개’, 불로동 갈산으로 통하는 고개인 ‘젓고개’, 불로동과 통하는 고개로 지금은 도로가 확장 된 ‘나무고개’, 고산후와 능굴을 왕래하는 고개인 ‘가막굴고개’, 앞산에서 마을 쪽을 향한 골짜기 또는 그 앞의 논인 ‘건넌굴’ 등이 있다.

2. 원당동의 문화유산



〈지도 8〉 원당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유적2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제외함)

- 3) 능굴에서 솔모랭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 4) 지금은 아파트 건설로 소실되었다.

1) 김안정 묘·출토 묘비



〈사진 40〉 김안정 묘

김안정은 고려시대 문신으로 증조부는 보승랑장 김연성(金鍊成)이고 조부는 지숙천군사 김합(金盒)이다. 아버지는 별좌 김윤견(金允堅)이고 어머니는 낭장 선공윤(宣公允)의 딸 보성선씨이다. 김안정은 별장 오순(吳順)의 딸 보성오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김자

량(金子良), 차남은 김자순(金子純)이다.

1357년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관직에 진출하여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냈으며 사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의 무덤은 본래 송도현 개성 인근에 조성되었으나 분실되었고, 그의 후손 중 일부가 지금의 검단 원당동에 세거하며 시신 없이 의복과 갓을 묻은 의관묘(衣冠墓)를 조성하였다.

현재 김안정의 묘는 부인 보성오씨와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묘비·묘갈·혼유석·상석·향로석·망주석 및 문인석 1기가 있다. 문인석이 1기만 있는 것으로 보아 1기는 망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묘비는 1634년에 제작된 것과 1786년에 제작된 것 2가지가 있다. 이 중 1634년에 제작된 것은 묘의 서쪽 5m 지점에 매몰되어 있다가 2003년에 출토되어 현재 철제 보호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1786년에 제작된 것은 김안정의 7세손, 8세손이 건립한 것이다.⁵⁾

비석 앞면에는 “부인 보성(寶城) 오씨(吳氏) 부(附)”, “고려 봉익대부 삼사좌윤 김공안정의 묘”라고 쓰여있다. 뒷면에는 김안정의 생애 및 행적, 부인과의 합장, 새로운 비석을 세우게 된 계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⁶⁾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87쪽.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290-292쪽.

인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5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묘역이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조선시대 분묘유적이다. 또한 이 묘역 일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조사를 수행하여,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수혈, 많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⁷⁾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43(원당동 810-15번지)이다.

2) 의령남씨 종중묘역⁸⁾



〈사진 41〉 의령남씨 종중묘역 전경

의령남씨는 고려시대 통헌대부(通憲大夫) 추밀원직부사(樞密院直副使)를 지낸 남군보(南君甫)를 시조로 한다. 남군보는 신라 경덕왕 때 남씨로 사성받은 남민(南敏)의 후손이며 고려 충렬왕 때 공을 세워 의령군(宜寧君)에 봉해지게 된다. 그리고 검단

원당의 의령남씨는 17세 남종언(南宗彦)이 한성부에 거주하다가 18세기 전반에 이곳으로 낙향한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원당동 능굴마을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원당동 의령남씨 묘역은 2010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위치는 원당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옥계봉에서 송우산과 장구산에 이르는 양지바른 산줄기이다. 현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4-18번지(구 지번 산82-1번지)이다. 묘역 내에는 남정화(南挺華), 남정(南濤), 남두장(南斗長), 남문하(南文夏), 남성기(南聖基), 남종언(南宗彦), 남철신(南喆臣) 등의 묘가 있다. 이 중에서 남정화의 묘, 남정의 묘, 남두장의 묘 등 3기의 묘는 묘표, 묘갈,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 등 조선 후기의 석물이 보존되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212쪽.

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212쪽;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290-313쪽.

다음으로는 묘역에 모셔진 인물 중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남정화, 남정, 남두장의 묘와 비석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남정화(南挺華)⁹⁾



〈사진 42〉 남정화 묘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국실(國實)이며 생몰연도는 1543~1615년이다. 고조부는 부정(副正)을 지낸 남칭(南僞)이고, 증조부는 군수를 지낸 남변(南忭)이며 조부는 이조참판을 지낸 남세준(南世準)이다.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남응로(南應老)이다.

남정화는 군수 임의신(任毅臣)의 딸인 숙부인(淑夫人) 풍천임씨와 혼인하여 장남 남형(南炯)을 두었고, 증령의정(贈領議政) 김오(金禩)의 딸 숙부인(淑夫人) 연안김씨와 혼인하여 차남 남정(南滯) 및 두 딸을 두었다. 관직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남정화의 묘는 본래 1615년 경기도 광주에 조성되어 있었다. 당시 무덤은 숙부인 풍천임씨의 무덤과 남정화와 연안김씨 합장묘 총 2기였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1970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면서 모두 합장하여 하나의 무덤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남정화의 무덤은 묘역 상단에 있으며, 옛 묘비와 새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망주석은 한 쌍이며 밑면이 팔각형 기둥이고 맨 꼭대기의 공 모양은 끝이 뾰족한 연꽃 봉오리 형태이며 가장자리는 구슬 모양의 무늬를 둘렀다.

비석은 1679년에 만들어졌으며 높이 119cm, 너비 46cm, 두께 16cm이다. 비문 내용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남공 정화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297쪽, 301~304쪽;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 “의령남씨 종중묘역”

의 묘”, “숙부인 연안김씨 부좌 초후”이라고 쓰여 있으며 후면에는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행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남공 정화 묘갈 음기”라는 제목, 그리고 남정화의 생애와 행적 등이 쓰여 있다. 비문은 승록대부 행병조판서 겸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김석주가 짓고, 보국승록대부 행판돈녕부사 겸 판의금부사 이정영이 썼다.

(2) 남정(南漣)¹⁰⁾



〈사진 43〉 남정 묘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여청(汝淸)이고 생몰연도는 1586~1648년이며 대표 관직은 한산군수(韓山郡守)이다. 아버지는 남정화이고 어머니는 숙부인 연안김씨이다. 남정은 참봉(參奉) 정민수(鄭民秀)의 딸 숙부인(淑夫人) 광산정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은 남두장(南斗長)이고 차남은 남두징(南斗徵)이다.

남정은 처음 관직에 나가서 사산감역, 장예원사평, 비안현감을 지냈다. 인조반정 후에는 전생서주부를 거쳐 홍천현감, 한산군수, 오위장을 지냈고, 사후에 첨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 무덤은 현재 묘역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숙부인 광산정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표와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비문 내용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숙부인 광산 정씨의 묘”, “조선국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남공 정(漣)의 묘”라고 쓰여있으며, 후면에는 “첨지중추부사 남공 묘표”라는 제목과 남정의 생애 및 행적, 무덤을 조성하게 된 경위, 생전 성품 등이 쓰여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305, 308~312쪽.

묘표는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김수항(金壽恒)이 글을 짓고 유록대부 청평위 심익현(沈益顯)이 글씨를 썼다. 묘표의 모양은 꽃으로 만든 모자를 쓴 것과 같은 모습으로 머릿돌은 반원형으로 반쯤 가려진 해를 중심으로 구름무늬를 조각했고 사각 형태의 향로석은 문양을 넣었다. 상석을 받치는 속돌에도 문고리 형태의 문양이 있다. 문인석은 조례에 참석한 관원의 복장형이고 망주석은 한 쌍으로 밑면이 팔각형 기둥이고 맨 꼭대기의 공 모양은 끝이 뾰족한 연꽃 봉오리 형태이며 가장자리는 구슬 모양의 무늬를 돌렸다.¹¹⁾

(3) 남두장(南斗長)¹²⁾



(사진 44) 남두장 묘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천경(天卿)이며 생몰연도는 1613~1689년 이고, 대표 관직은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이다. 아버지는 남정이고 어머니는 숙부인(淑夫人) 광주정씨(光州鄭氏)다. 남두장은 증판서 이희민(李希閔)의 딸 연안이씨(延安李氏)와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다. 이 중

장남은 남문하(南文夏)이며 차남은 남명하(南明夏), 3남은 남현하(南顯夏)이다.

1650년에 진사가 된 다음 1652년에 전설사별검에 제수되었으며 제용감직장, 장악원주부, 장례원사평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 의령현감, 의금부도사, 석성현감, 익위사사어, 평강현감, 온양군수를 거쳐 종묘서령, 공조정랑, 한성부서윤, 광흥창수를 지냈다. 특히 의령현감과 온양군수로 있을 적에 어사가 남두장의 선정을 포상하도록 계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123쪽.

1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앞의 책, 313-321쪽.

현재 남정의 묘는 묘역 우측에 위치하였으며, 증숙부인 연안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갈,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부인인 연안씨는 남두장보다 5년 먼저 별세하여 원당동 선영에서 장례를 지냈다가 남두장이 별세하자 묘를 합하였다.

남두장 묘갈은 1701년에 만들어졌으며 높이 121cm, 너비 53cm, 두께 17cm이고 비문은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증추부사 남구만(南九萬)이 짓고 썼다. 비문에는 ‘통헌대부 행 한성부서윤 남공 묘갈명 병서’라는 제목과 남두장의 생애 및 행적, 시 형태로 된 명문(銘文) 등의 내용이 있다.

3) 원당동 유적

원당동에서는 크게 총 3번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구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서 발굴조사 되었다. 두 번째는 2005~2007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원당~불로간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고인돌 1기가 확인되면서 인접 능선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13~2017년 중 부고고학연구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부지 IV지점 내 유적에 대한 표본·시굴·발굴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여기서는 편의상 유적 ①·②·③으로 이칭하여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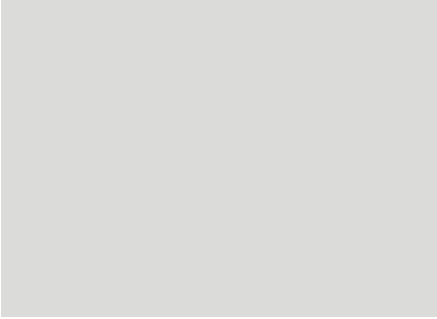
(1) 유적 ①¹³⁾

첫 번째 원당동 유적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 조사 연구단에서 발굴조사한 곳으로 인천 서구 원당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8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2002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3·4구역이 원당동에 해당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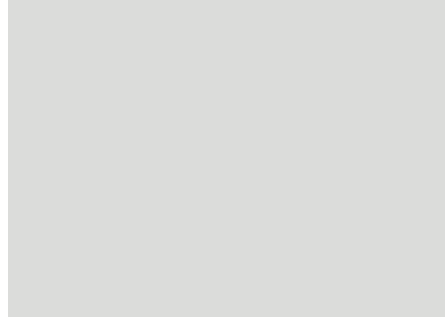
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원당동 유적(Ⅰ)』, 2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인천 원당동 유적(Ⅱ)』, 253~271쪽.

VII. 원당동

이다.¹⁴⁾ 3구역의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5(원당동 824-10번지, 구지번 원당동 산130번지) 일원이며, 4구역은 원당동 산118번지 일원이다.



〈사진 45〉 원당동 유적 전경



〈사진 46〉 원당동 유적 전경

조사는 3구역과 4구역이 각각 이루어졌고 확인된 유구는 구석기문화층부터 근세 유구까지이며, 발굴조사 결과 46기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구역의 경우 토광묘 2기, 수혈유구, 부석유구, 회곽묘 등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4구역에서는 ‘가’ 지점에서 주거지 19동, 수혈유구 3기, ‘나’ 지점에서 주거지 7동, 수혈 유구 4기, 토광묘 2기, 2개의 구석기문화층, 주거지 5동, 토광묘 1기 등 모두 41기의 유구와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또한 4구역에서 구석기, 청동기시대 무문 토기편, 원형점토대토기편, 마제석기, 어망추, 조선시대 동경, 청동 숟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3구역에서 발견된 유구에 대해서는 시대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4구역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구가 모두 발견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4구역의 ‘원당4-라’ 지점에서 발견되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정식 발굴조사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석영맥암을 이용한 몸돌, 여러 면석기, 굽개, 격지, 떼어진 흔적이 있는 부스러기, 망치 등과 규암 재질의 찍개, 잔손질된 격지 등이 발견된다.

14) 원당동 유적 중 1·2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과 당하동에 걸쳐 있어 원당동 유적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원당동 유적인 3·4구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4구역의 ‘가·나·라’지점에서 발견된다. 4구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생활유구로서 주거지 31기와 수혈유구 6기의 총 37기이다. 여기에서는 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 단독 혹은 혼용되어 시문되거나 이중구연 혹은 무문양의 무문토기와 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 등 토기류와 마제석기가 출토되었다.

(2) 유적 ②¹⁵⁾

이 유적은 인천 서구 불로동 만수산 서쪽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원당~불로간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고인돌 1기가 확인됨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발굴은 구릉의 정상부와 북사면에서, 2차 발굴은 1차 조사구간 서쪽의 구릉 정상부에서, 3차 발굴은 구릉의 남사면에서 이루어졌다.



〈사진 47〉 1차 조사, 조사 전 전경(북-남)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사진 48〉 1차 조사, 조사 전 전경(북-남)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주요 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 1기와 수혈 2기가 있다. 이들은 자연 삭평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상당 부분이 삭평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잔존규모는 길이 1,160cm, 너비 400cm에 깊이가 15cm 미만으로 원당 일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이며 바닥은 특별한 시설 없이 암반층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내부 시설로는 노지 4기와 기둥구멍 3기, 저장공 1기가 확인

15) 인하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46쪽.

되었다. 주거지 내부토에서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마제석촉, 반월형석도, 방추차, 솥돌, 갈돌, 용도 미상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노지(爐址)는 주거지 중앙을 중심으로 나란히 설치되었으며 60cm 내외의 평면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소량의 목탄들이 확인되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없다.

또한 수혈 2기도 발견되었는데 이중 2호 수혈에서 공렬문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수혈은 부정형으로 크기는 장축 170cm, 단축 165cm, 깊이 5~20cm이며 정확한 성격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진 49〉 2호 수혈 출토 공렬문토기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3) 유적 ③¹⁶⁾

조사지역은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55(원당동 987-1번지, 구 지번 원당동 산19-3번지) 일원이

다.¹⁷⁾ 지표조사는 2008년 3월에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고, 표본조사는 2013년 11월 26일에 진행하였고, 2014년 6월 2일에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유적에서 총 42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시대별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23기·수혈유구 2기, 삼국(백제)시대 주거지 1기·수혈유구 11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2기·토기가마 1기·수혈유구 24기·묘 10기, 고려시대 건물지 1기·묘 3기, 조선시대 건물지 6기, 주거지 13기, 탄요 1기, 소성유구 1기, 적석유구 2기, 수혈유구 13기, 구상유구 2기, 묘 66기, 근대 묘 87기, 시대 미상 굴립주건물지 2기·소성유구 6기·적석유구 1기·수혈유구 133기·구상유구 17기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생활 및

16)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본문-』, 2쪽, 17-18쪽.

17) 옛 지번이므로 현재 지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산·분묘유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⁸⁾

출토된 유물은 모두 637점이며 토기류, 도기류, 자기류, 기와류, 석기류, 금속류, 구슬류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금속류로 209점(33%)이고, 자기류는 118점(18.5%), 기와류는 115점(18%), 토기류는 94점(15%), 도기류는



〈사진 50〉 원당동 유적 원경(동에서)
(출처: (재)중부고고학연구소)



〈사진 51〉 원당동 유적 원경(북동에서)
(출처: (재)중부고고학연구소)

47점(7.2%), 석기류는 37점(5.8%), 구슬류 16점(2.5%)이다. 또한 청동기시대에서부터 삼국(백제)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8)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분석·고찰·사진-』, 17쪽.

|참고문헌|

고문헌

『김포읍지(金浦邑誌)』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본문-』.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분석·고찰·사진-』.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금석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하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원당동 유적(Ⅰ)』,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원당동 유적(Ⅱ)』, 2008.

인터넷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의령남씨부정공파 인터넷 족보(<https://www.yesjokbo.org/onjokbo/index.asp>)

VIII



불로동



文
化
中
遺
産



Ⅷ. 불로동

1. 불로동의 연혁과 지명¹⁾

불로동은 목지와 사이의 제향산과 동북쪽의 당산 또는 만수산을 주위로 자리하며 김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불로(不老)라는 마을 이름은 예전에 이 일대에서 불로초(不老草)가 발견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불로동이 불로장수의 마을로 유명해진 것은 마을에서 보이는 만수산의 덕이 크다. 불로와 마산, 갈산부락을 끼고 위치해 있는 만수산은 예로부터 마두산으로도 불리었다. 해발 98m인 나지막한 만수산의 정상에서 만나는 불로동 일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만수산은 예로부터 많은 전설을 낳은 명산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불로장생을 가능하게 하는 약초들이 많이 자랐다. 그 약초를 먹은 사람들은 장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만수산의 명성이 대단했다. 이러한 전설 때문인지 만수산에서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우리 고어에 한자표기로 ‘백(白, 百), 밧(鉢), 팔(八), 벽(碧)’ 등과 함께 ‘불(不)’자가 들어가는 고유지명은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의 명칭으로 많이 남아있다.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이곳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마을제사를 지내왔다. 당산에 있는 참나무숲에는 아직도 마을제인 도당제를 지내면서 매년 새로 만드는 터주가리가 설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불로리는 마산리(馬山里) 마산면(馬山面)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789년(정조 13)에 제작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부터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 1871년(고종 8)의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김포읍지(金浦邑誌)』에 따르면 현 불로리 지역은 마산리(馬山里), 불로리(不老里)가 법정리로 존치되어왔다. 1914

1) 『호구총수(戶口總數)』;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김포읍지(金浦邑誌)』;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년 전국행정구역개편 시 법정리였던 불로리와 목지리를 불로리(不老里)로 통합하고 불로, 목지, 갈산으로 행정리를 구분하였다.

불로지역은 약 450여 년 전 남평문씨(南平文氏)인 문이길(文以吉)이 입향조로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후 조선 중기에 밀양박씨, 전주이씨, 파평윤씨, 경주이씨, 평택임씨가 세거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마산 외물에 있는 수령 500년 된 은행나무와 불로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당산의 느티나무, 참나무 등이 현존하고 있다.

목지(木枝)의 지명유래는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당(堂) 뒤에 있던 나뭇가지가 당을 덮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김포군지명유래집』에 보면 목지(木枝)의 ‘가지 지(枝)’는 ‘산제(山祭)이름 기(枝)’가 된다고 적혀 있다. 이 마을에 당(堂)이 있었다는 구전(口傳)과 제향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던 산이므로 ‘목지’란 명칭은 산신제와 관련이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목지(木枝)’는 ‘산신제를 지내던 나무’, 즉 ‘당목(堂木)’의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목(堂木)이 있는 마을’로 설명하고 있다. 높은 산에 신이 내리는 것처럼, 오래된 물건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기는 것처럼,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나무에도 신성한 영혼이 깃든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더욱 조심히 보호한다. 때로는 이런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그러한 나무를 당산목(堂山木), 성황림(城隍林), 종묘숲 등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논둑에는 고사한 향나무(약 600년 추정)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예전 제를 올리던 산의 이름을 ‘부흥산(富興山), 부영산, 자양산(紫陽山), 재양산, 지양산, 나뭇가지 산’ 등으로 부르며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포와 접한 금정산에서 원당, 고산후를 넘던 고개지명을 ‘뒀개기, 뒕개기, 뒀고개’로 불렀는데, 고개가 높고 험해서 다니기 힘들다는 의미였다.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은 ‘뒀고개 마을’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설로는 이 마을이 지형적으로 중요한

길목이라서 ‘목지(木枝)’라 했다고 전한다. 목지마을의 선거인은 남원윤씨로 보며 150여 년 전에 원당에서 풍산김씨가 입향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고 한다.

목지마을은 김포시와 여우재고개 산줄기를 맞대고 경계를 이루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마을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문헌상으로 목지마을의 지명은 1789년부터 1899년까지의 『김포군읍지』를 보면 마산면 소속의 목지리로 법정리였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갈메리와 함께 불로리로 통합되었다.

2. 불로동의 문화유산



〈지도 9〉 불로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불로동 근린공원(8호) 내 고인돌²⁾

고인돌(지석묘)은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만든 거석(巨石) 건조물의 일종이다. 여러 용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거

2) 불로동 근린공원 내 고인돌 안내문.

석 건조물은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0,00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한국의 고인돌은 크게 탁자식(북방식), 기반식(남방식), 개석식(무지석식) 등으로 나뉜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매장유산 조사 과정 중 불로동 1호, 불로동 2호, 원당동 1호 등 총 3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암반에서 큰 돌을 채석하고 축조 장소까지 옮긴 후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과 조직력이 필요하다. 3기의 고인돌은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암반에서 큰 돌을 떼어내는 채석 작업이 필요하다. 작은 돌은 그대로 흙을 파 떼어내기도 하고, 큰 돌은 암반의 틈새에 나무 켄기를 박은 후 물을 부어 팽창시켜 돌을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떼어낸 돌을 옮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나무를 깎아 다음 끌어 옮기는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였다. 검단신도시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재질로 보아 근처 장룡산 등지에서 채석해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축조 장소까지 옮겨온 석재는 구덩이를 파고 받침돌(지석)을 세운 후 받침돌이 파묻히도록 흙으로 경사로를 만든다. 경사로를 따라 통나무를 밑에 깔고 덮개돌(상석)을 끌어올려 덮개돌을 받침돌 위에 올린 다음 흙을 치워 마무리하였다. 검단신도시에서는 공사 전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3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이 고



〈사진 52〉 불로동 1호 고인돌



〈사진 53〉 불로동 2호 고인돌



〈사진 54〉 원당동 1호 고인돌

인돌들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단신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발굴 당시 고인돌의 일부 부재는 파손된 상태였고, 일부 부재는 오랜 기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약화된 상태였다.

불로동과 원당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검단신도시 불로동 근린공원 내부(인천광역시 서구 금정로 96, 불로동 965-1번지)에 복원되어있다. 부재의 상태를 고려한 결과 불로동 1호 고인돌과 원당동 고인돌은 원래의 부재를 강화 처리 및 접합하는 과정을 거쳐 발굴할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불로동 2호 고인돌은 덮개돌은 원래의 석재를 강화 처리하여 사용하고 파손된 받침돌은 인조암 공법으로 대체하여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재현하였다.

원당동 1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이루에 걸쳐져 비스듬하게 놓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꺾임돌이 세워져 있지 않고 누어져 있는 ‘변형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되며, 꺾임돌 1매는 원위치에서 벗어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오산 외삼미동 고인돌 등에서도 확인된다. 불로동 근린공원 안에 원당동 1호 고인돌은 발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길이×너비×두께(cm)	무게(ton)
덮개돌	372×282×75	14.5
꺾임돌1	136×235×29	1.4
꺾임돌2	136×133×21	0.6

〈표 3〉 원당동 1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불로동 1호 고인돌은 발굴 당시 덮개돌은 두 조각으로 깨져 있었고, 그 사이 꺾임돌로 사용된 석재가 쓰러져 있었다. 덮개돌은 회흑색의 화강암질이고, 꺾임돌은 2매이다. 고인돌 아래에서 청동기 시대 무문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으며 원래 탁자식 고인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II. 불로동

	길이×너비×두께(cm)	무게(ton)
덧개돌A	345×328×100	14.5
덧개돌B	174×286×75	4.7
킴돌1	136×235×29	1.4
킴돌2	136×133×21	0.6

〈표 4〉 불로동 1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불로동 2호 고인돌은 발굴 당시 쓰러진 상태로 덧개돌은 킴돌 1매 위에 비스듬히 얹혀 기울어져 있었다. 본래 탁자식 고인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킴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인조암으로 대체하였으며 원형은 고인돌 공원에 재현하였다.

	길이×너비×두께(cm)	무게(ton)
덧개돌	372×282×75	18.5
킴돌1	120×174×58	3.3
킴돌2	162×116×44	3.3

〈표 5〉 불로동 2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2) 마산마을 은행나무³⁾

불로동 마산마을의 은행나무는 1982년 10월 15일 서구 보호수 제4-8-4호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4번길 3번길 8(불로동 793-1번지), 검단신도시 삼보해피하임 아파트 2단지 안에 위치하며 단지로 들어가면 505동과 506동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나무 주변에는 뿌리를 보호하고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쌓아올린 석축(돌단)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

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60, 162쪽.

고 나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 시설로, 이러한 구조 덕분에 마산마을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산마을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남아있는 이 은행나무 한 그루는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55〉 마산마을 느티나무 전경



〈사진 56〉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석축(돌단)

마을 원로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신령이 깃든 신성한 나무로 여겨 어린아이들이 주위에서 노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당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도 미신으로 치부되어 버렸고 당제를 지내던 전통도 사라졌다고 한다.

불로동 마산마을 은행나무는 과거에 ‘왜물 은행나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은행나무 근처에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이 우물의 물을 좋아하여 이곳에 와서 물을 떠서 먹었던 곳이라고 하여 마산리를 ‘왜물’이라고 불렀으며, 은행나무 또한 왜물 은행나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3) 불로동 당산 음나무

불로동 당산 음나무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77번길 22(불로동 770-2번지)에 위치해 있다. 단독주택 바로 옆 산 능선 끝자락에 자리하여 도로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진아파트 102동 정면 맞은편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이 나무는 지표 부근에서 여러 갈래로 줄기가 갈라지는 형태를 띠며, 그중 가장 굵은 줄기의 둘레는 약 3.2m, 높이는 약 20m에 이른다.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된다.⁴⁾



〈사진 57〉 당산 음나무 전경



〈사진 58〉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모습

음나무는 엄나무라고도 부른다. 이른 봄에는 새순을 나물로 만들어 먹었고, 가지가 많은 음나무 가지는 닭백숙 재료나 한약재로 쓰였다. 저승사자를 막은 나무라는 설화에서 알 수 있듯 민간에서 음나무는 예로부터 '귀신나무'라 불리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마을 입구나 대문 옆에 심거나 대문이나 방문, 외양간에 가지를 꽂아두는 풍속이 있었다.⁵⁾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64쪽.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1쪽.

4) 불로동 당산 참나무⁶⁾

불로동 당산 참나무는 이 마을의 당산인 용해산 입구에 위치한다. 높이는 20m이며, 둘레는 1.5m이다. 이곳은 오래된 참나무 군락 지역으로 잡목이 많아 출입이 어려워 인적이 드물다. 과거에는 참나무 앞에 제단을 마련하여 간단한 제물을 놓고 제사를 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이곳을 거의 찾지 않으며, 아이들 또한 이 나무에 손을 대거나 장난을 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다고 한다.



〈사진 59〉 불로동 당산 참나무 (현재는 소실)

불로동의 당제는 큰 당산에서 도당제를 드리고, 작은 당산에서 따로 준비한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불로동 당산 참나무 터가 큰 당산의 역할을 하였고, 불로동 아랫마을 느티나무가 작은 당의 역할을 했다. 마을 원로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는 이 마을의 당제를 무속인이 주관하였으나 군부대에서의 실수로 도당나무가 베어진 후에는 인근의 절에 위탁한다고 한다. 소실되기 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산183번지에 위치하였다.

5) 아랫마을 느티나무⁷⁾

불로동 아랫마을의 느티나무는 불로경로당 앞에 있으며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3번 안길 21(불로동 767-13번지, 구 지번 불로동 산175-2번지)이다. 이곳은 마을의 당산인 용해산의 남서쪽에 자리하며, 마을 원로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었고, 아이들이 이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놀기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68-170쪽.

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72쪽.

도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랫말’이라 불렀으나, 현재는 그 명칭과 옛 모습이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 나무 주변에는 보호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 나무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60〉 불로동 아랫마을 느티나무

6) 불로동 유물산포지⁸⁾

우리나라의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 무렵에 걸쳐 지속되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여러 종류의 뎀석기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돌을 대고 직접 망치로 때리는 직접 타격법으로 석기를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돌과 망치 사이에 다른 물체를 대고 때리는 간접 타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인천의 구석기 유적지는 원당동, 불로동, 가정동, 연희동, 검암동, 문학동 등에 있다.

원당동과 불로동의 문화층 유적은 7만 년 전에 퇴적된 토양에 형성된 것이고 후기 구석기 유물로 보이는 뎀석기 유물들이 처음 출토되었다. 불로동 유적은 서구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2003년 발굴조사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서구 불로동 황학산(해발 120m)의 서남쪽 말단부로 해발 20m 내외의 얇고 완만한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구릉 주변으로는 원당동 유적과 같이 넓지는 않지만 낮고 편평한 평지가 펼쳐져 있다. 불로동 유적은 호우로 인해 석기가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인천에서 2번째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이곳에서 석영과 규암으로 만든 찍개, 긁개, 새기개, 몸돌 등 총 26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안내 패널.



〈사진 61〉 청동기 겹아가리토기
검단선사박물관



〈사진 62〉 청동기 구멍무늬토기, 항아리모양토기
검단선사박물관



〈사진 63〉 고려시대 청자주자, 청자잔과 잔받침, 청자접시
검단선사박물관

인천 전역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검단 지역은 인천 청동기 문화의 핵심이라 할 만한 중요한 보고(寶庫)이다.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560여 기에 달하는 집자리와 고인돌, 환구 등 약 60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불로동 일대에서도 같은 시기의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 겹아가리토기, 항아리모양토기가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불로동 일대에서는 간돌검, 간돌창, 간돌화살촉이 발굴되었다. 간돌창은 돌로 만든 창으로서 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대형 어류를 포획할 때 사용하는 수렵어로용 도구이다. 간돌화살촉은 돌을 갈아 만든 화살촉으로 화살대 끝에 붙여 원거리의 동물을 사냥하거나 무기로 사용하였는데, 화살대와 결합하는 슛베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크게 슛베 없는 것과 슛베 있는 것, 버들잎 모양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불로동 일대에서는 다양한 수렵용 도구가 제작·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 사냥과 어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경 활동의 흔적 또한 확인된다. 불로동에서 출토된 반달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베어내는 데 사용된 수확용 석기로, 반달 모양을 지닌 데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이 도구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묶어 손가락을 넣어 잡고, 식물의 줄기를 당겨 베어

내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불로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도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상당 부분 후대의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잔존규모는 장축이 720cm, 너비 330cm, 깊이 30cm로 장방형을 띠고 있다. 주거지의 부속시설로는 타원형의 노지 2기와 벽구,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을 비롯해 무경식과 일단경식 석축, 석창, 마제석부, 지석(砥石: 솥돌) 등이 출토되었다. 주변 지표에서도 반월형 석도, 마제석부, 방추차,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불로동 유적의 주거지는 입지와 구조와 형태, 출토유물이 원당동 유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집터와 토기나 기와를 구웠던 가마가 나왔다. 백제 시대의 기와는 그 이후의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보다 두께가 매우 얇았다. 가마에서는 기와와 토기의 형태를 빚을 때 활용한 도구 '내박자'도 함께 출토됐다. 불로동 집터에서 출토된 가락바퀴와 그물추는 삼국시대에 주로 사용된 것이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방적 도구의 하나로 지금까지 확인된 선사시대의 가락바퀴는 원반 모양, 팽이 모양, 주판알 모양, 공 모양 등이 있다. 가락바퀴 가운데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가락바퀴의 축이 될 막대를 넣고 그 축을 돌려 실을 꼬아서 뽑는 도구였다.

고려시대 무덤은 돌방무덤과 돌덧널무덤, 널무덤 등이 대표적이며 화장묘도 성행하였다. 이 가운데 널무덤이 가장 널리 조성되었다. 고려의 무덤에는 청자와 백자, 도기, 청동 그릇, 거울, 동전 등이 부장되는데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인 경우가 많다. 검단신도시 유적에서는 돌덧널무덤과 널무덤 180여 기가 발굴되었다. 부장 품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으나 불로동 석곽묘에서 다기(茶器)가 일괄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특히 청자주자(靑磁注子), 청자잔과 잔받침, 청자접시가 불로동에서 발굴되었다. 이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에 묻힌 이들은 일반민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갖추었던

계층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검단지역이 부평에서 독립하며 김포현에 속하였다. 최근 검단신



〈사진 64〉 고려시대 '김포관가'가 새겨진 암키와
검단선사박물관



〈사진 65〉 조선시대 분청사기 항아리
검단선사박물관

도시 유적에서 건물지와 집자리, 기와가마, 널무덤과 회곽묘 등 약 700여 기의 유구가 조사되어 조선시대 검단지역의 생활상과 매장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덤 유적으로는 널무덤 440여 기와 회곽묘 90여 기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가장 널리 조성된 널무덤은 구릉 사면에 수십 기가 군집을 이루어 확인되었고, 백자와 분청사기, 도기, 청동 그릇, 동전, 구슬 등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불로동 일대에서는 백자 대접, 분청사기 항아리, 손잡이 달린 항아리, 구슬 목걸이 등이 발굴되어 당시 매장 풍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 당시 유물산포지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37-1, 547-4, 547-11 일대에 해당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검단선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문헌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김포읍지(金浦邑誌)』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김포군, 1995, 『김포군지명유래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기타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안내 패널

불로동 근린공원 안내문

IX



대곡동



文
化
史
遺
産



IX. 대곡동

1. 대곡동의 연혁과 지명

1) 대곡동의 연혁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은 조선시대 김포군(또는 김포현) 마산면 대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중종 연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토산인 황옥(黃玉)의 출처로 검단리 애갈산의 지명이 보이는데, 검단리에 마산리가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¹⁾ 또, 조선 영조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마산면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그 밑으로 대곡리, 불로리, 목지리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한편, 1573년 건립된 황곡마을 소재 신영(申瑛)의 신도비문에는 이 마을의 소재지가 김포 ‘마산리’라고 하였고, 1712년 두말에 세운 반남박씨(潘南朴氏)인 박정(朴炆)의 신도비에는 김포 ‘마산면’이라 하였다.²⁾ 이 지역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법정리로 편제가 되었다는 사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숙종 38년(1712)에 세워진 박동선의 아들 박정의 신도비에는 마산면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조선 전기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김포군 내에 마산리로 불리다가 16세기를 전후하여 마산면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여지도서』에 따르면 마산면에는 대곡리, 불로리, 목지리 등의 방리(方里)가 기록되어 있었고, 정조 13년(1789)에 왕명으로 발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마산면 내에 상술한 3개 리 이외에 서원리가 있었다. 현종 8년(1842)에 간행된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에도 서원리의 지명은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 8년(1871)의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에는 서원리가 보이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2, 金浦縣, 土産條.

2)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132쪽.

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조 연간에 서원리는 대곡리와 통합되어 있다가 정조 연간에 대곡리에서 분리되어 서원리라는 독자적인 방리의 명을 갖게 되었고, 약 100년 후에는 다시 대곡리와 병합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원리는 대곡동 안산의 건너편에 있는 쇠재산의 동북쪽 골짜기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설원이라 불리고 있다.³⁾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부군면(府郡面) 통합합을 실시하게 되면서 마산면(馬山面), 노장면(蘆長面), 검단면(黔丹面)이 통합되어 검단면에 속하였다.

이후 대곡리도 1~4리로 나뉘어 1리는 태정, 2리는 두밀, 3리는 황곡, 4리는 설원으로 편성되었다.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된 1995년 이후에는 4개 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곡동으로 부르고 있다.

대곡(大谷)은 ‘큰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을 뜻하며 이를 한자로 옮긴 대곡동(大谷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곡동에 속한 마을들이 ‘가현산(歌絃山), 상두산(象頭山), 개연산(開連山), 갈현산(葛峴山), 가린산’ 등으로 불리던 가현산(歌絃山)의 동남쪽 큰 골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⁴⁾ 현재가 아닌 예전의 자연부락을 태정(台亭), 두밀(斗密), 황곡(黃谷), 설원(設院)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대곡동의 지명

(1) 태정(台亭)

선조(宣祖)의 응주(翁主)였던 정숙옹주(貞淑翁主)가 부마였던 신익성(申翊聖)의 내실(內室)이 있던 황곡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자부인 정숙옹주가 이곳에서 출산하여 그 태(胎)를 마을 뒷산에 묻었다 하여 ‘태정(胎亭)’으로 불리우다가 ‘태정(台亭)’이 되었다고 전해지나 사료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⁵⁾ 태정 마을은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하동정씨(河東鄭氏)가 입향하여 형

3)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132쪽.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106~107쪽.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107~108쪽.

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2) 두밀(斗密)

정조 13년(1789)에 제작된 『호구총수(戶口總數)』와 현종과 고종시기에 만들어진 읍지 자료들에는 법정리로서의 두밀, 또는 그 이전 명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대곡리와 두곡리를 법정 대곡리로 개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두곡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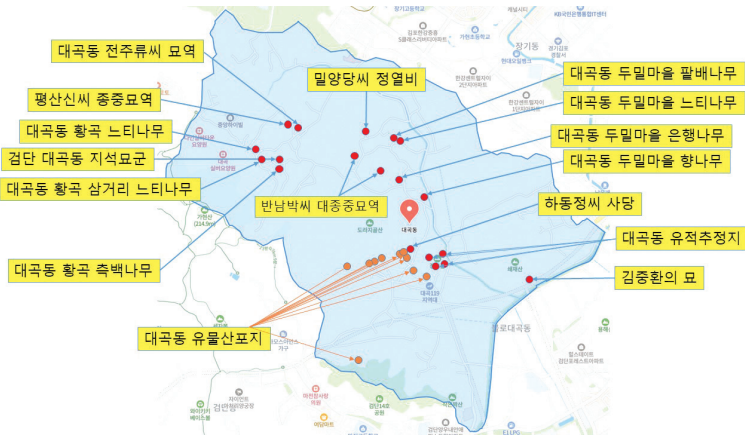
(3) 황곡(黃谷)

황곡(黃谷) 지역은 1500년대 초에 단양우씨의 외손(外孫)이었던 평산신씨(平山申氏) 이간(夷簡)이 입향조이며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문헌상으로의 법정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부군면 통폐합을 시행하면서 대곡 3리가 되었다. 황곡이라는 명칭에는 여러 설이 있다. 과거 이곳이 한적(閑寂)한 마을이라는 뜻에서 한자표기로 황곡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으며, 또한 산이 높았고 골이 깊은 마을이라 매년 풍년이 들어 논 전체가 황금물결처럼 보여서 황곡이라고 했다고도 한다.⁷⁾

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111쪽.

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117쪽.

2. 대곡동의 문화유산



(지도 10) 대곡동 문화유산 분포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검단 대곡동 고인돌(지석묘)군⁸⁾

검단 대곡동 고인돌군은 가현산 동쪽 자락인 안산과 쇠재산 사이의 평평한 경작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해발 100m 내외의 저산성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서구 독실동에서 발원한 나진하천이 동북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곡동 고인돌군은 1977년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攬)』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1990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9기가 보고되었으며 1992년 발간된 『김포군지(金浦郡誌)』에서는 A군과 B군으로 구분해 언급되었다. 이후 1999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의 김포시 문화유적 조사와 2001년 동양고고학연구소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2004~2005년도에 인천시립박물관과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A, B, C, D, E 군의 5개 군으로 조사 보고되었다.⁹⁾

8) 대곡동 고인돌군은 대곡동 지석묘군으로도 불린다.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 당시 '지석묘'로 지칭되었다.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면서 '검단 대곡동 고인돌군'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116~117쪽.

먼저, A군은 인천광역시 대곡동과 김포시 마산리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가현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과 운휴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이 서로 연결되는 나지막한 구릉 능선 위에 위치한다. 탁자식 고인돌 1기를 중심으로 25개의 석재가 널려있다. 모두 2m 이하의 소형으로 묘역조성, 인공림 조성, 군사시설의 조성 등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435×283cm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2005년 당시의 상태를 보게 되면 탁자식 형태이며 남쪽으로 쓰러져 있다. 거북등 모양의 덮개돌 아래에는 비스듬히 넘어진 판들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총 3개가 깔려있다.¹⁰⁾

B군은 A군에서 황곡마을로 가는 소로의 북편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가지능선의 말단에 위치하며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성혈이 새겨진 2기(1호-12개, 2호-4개)를 제외한 나머지 4기는 고인돌로 단언할 증거는 없으나 지석묘의 부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C군은 B군에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왼편으로 공장건물이 보이고 오른편으로 곡간부가 드러나 있다. 유적은 가현산의 가지능선 사이의 곡간부에 자리하는데 곡간부의 약간 볼록 솟은 새끼능선에 위치한다. 고인돌은 능선마루를 따라서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쪽의 말단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¹¹⁾

호수	크기(cm)	형태	장축	형식
1	323×210	말각장방형	북서	무지석식
2	280×296	타원형	북서	무지석식
3	210×102	말각장방형	북서	무지석식
4	190×123	말각장방형	북서	무지석식
5	140×94	말각장방형	북서	무지석식
6	174×160	말각방형	북서	무지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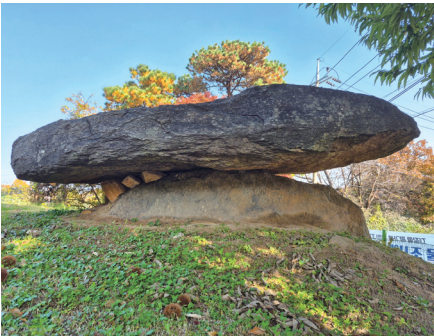
〈표 6〉 대곡리 고인돌군 B군 현황

10)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 조사-」, 54쪽.

11)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앞의 책, 57쪽 표 재인용.

C군에서 확인된 고인돌은 모두 75기이다. 그중에는 고인돌이 아니거나 단순한 암석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성혈과 채석흔이 확인되는 것이 12기 존재한다. D군은 C군의 동쪽에 있는 남북방향으로 뻗은 구릉산에 위치한다. 이 고인돌군은 도로로 인해 북쪽과 남쪽으로 잘린 상태이다. 북쪽의 구릉에서 2기, 남쪽의 구릉에서 6기가 확인되었다.¹²⁾ C군 고인돌의 경우는 여러 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고인돌군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¹³⁾

E군은 D군에서 소로를 따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유산 안내판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곡동 고인돌군의 가장 동쪽에 해당되며, 가현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구릉의 축선인 동서 방향으로 분포해 있다. 총 7기가 확인되었다.¹⁴⁾



〈사진 66〉 대곡동 E군 고인돌 1호



〈사진 67〉 대곡동 E군 고인돌 4호

2005년 조사 당시 E군 지역에는 일부 민가와 농경지만 존재하였으나, 공장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2025년 현재에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였다.

12)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앞의 책, 62~63쪽.

13)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앞의 책, 64~66쪽 참조.

14)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앞의 책, 107~108쪽.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고인들의 존재 현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E군 조사지역의 1호, 4호, 6호가 현재 보존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1호는 마을의 언덕 부근, 4호는 마을 입구 두 갈래 길에 있다. 6호는 민가 뒤에 있어 울타리로 둘러싸여 보존되어 있으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47-3번지(구 지번 대곡동 산123-1번지)이다.

2) 반남박씨 대종중묘역¹⁵⁾



〈사진 68〉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반남박씨대종중묘역은 두밀에서 안새골로 내려가는 도로변 우측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3-9번지(구 지번 대곡동 산151-1번지)와 대곡로 276번길 13(대곡동 209-5번지, 구 지번 대곡동 산 152번지) 일원이다. 묘역은 대체로 입구부터 우측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이다.

반남박씨는 고려 후기의 문신 박상충이 자리 잡은 후 현재까지도 일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반남박씨 묘역의 초입에는 조선 인조대에 대사헌을 지낸 박동선과 박동선의 아들이 있고, 인조대에 이조참판을 지낸 박정(朴炯)의 신도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구성되어 있는 묘주는 박승, 박병문, 박동선, 박정, 박세규, 박집, 박응인이며 이들의 배향과 묘갈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 표¹⁶⁾와 같다.

1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277쪽.

16)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4쪽 표 재인용.

	묘 주	배향	묘갈형태	묘갈연대	묘갈명
1	박승(朴乘)	파평윤씨 (坡平尹氏)	화강석 양면비	1630년	9대손 대사간 박지원(朴志源) 서(書)
2	박병문 (朴秉文)	밀양박씨 (密陽朴氏)	화강석 양면비	1774년	10세손 박해(朴海) 서(書)
3	박동선 (朴東善)	전주이씨 (全州李氏)	화강석 양면비	丁巳 9년	-
4	박정(朴炆)	-	화강석 양면비	丁巳 9년	-
5	박세규 (朴世圭)	-	화강석 양면비	丁巳 9년	-
6	박집(朴緝)	신천강씨 (信川康氏)	오석(烏石) 4면비	1989년	-
7	박응인 (朴應寅)	밀양변씨 (密陽卞氏)	오석 4면비, 화강석 4면비	1684년	김육(金瑨) 찬(撰), 유상운(柳尙運) 서(書)

〈표 7〉 반남박씨 묘주 및 묘갈 형태

박동선 신도비(朴東善神道碑)의 크기는 240×97×39cm로 건립연대는 조선 숙종 33년(1707)이다. 반남박씨 묘역의 입구 왼쪽에 있으며 낮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 그리고 옥개를 갖춘 조선 중기 신도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양면비이며, 찬자(撰者)는 조선 중기 소론의 거두였던 윤증이며, 당대의 명필 이서가 썼다. 전각에 이름났던 최석정이 전서를 맡았다.¹⁷⁾

박정 신도비(朴炆神道碑)는 크기 220×93×35cm의 양면비로 건립연대는 조선 숙종 39년(1713)이다. 반남박씨 묘역의 입구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비교적 높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 그리고 장식이 없는 옥개를 갖춘 조선 중기의 신도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찬자는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비(三田渡碑)를 지었던 이경석이다. 이경석이 사망한 연대는 1671년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듯하나, 신도비문의 찬은 1655년에 이미 해 두었던 것을 1713년 증손인 박필기가 썼던 것으로 보인다. 아들 박세당과 교분이 있었던 최석정이 전서를 썼다.¹⁸⁾

17)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21쪽.

18)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2쪽.

박응인 묘갈(朴應寅 墓碣)은 조선 숙종 10년(1684)에 건립된 것으로 그 크기는 140×60×21cm이다. 2005년에 박응인의 묘역은 새롭게 정비되어 석물들은 모두 최근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 다만 봉분의 우측으로 측면을 보며 세워져 있는 묘갈명만이 묘역의 조성연대를 추측할 뿐이다. 낮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돌에 비해 옥개가 커서 균형이 잡힌 모습은 아니다. 4개의 면비로, 찬을 지은 사람은 조선 중기의 대동법 실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김육이고, 쓴 이는 남인이었던 유상운이다.¹⁹⁾

3) 평산신씨 종중묘역²⁰⁾



〈사진 69〉 평산신씨 종중묘역

황곡은 조선 중종대 문신인 평산신씨 신영(申瑛)이 입향조가 되었으며 지금은 후손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평산신씨 종중묘역은 서남에서부터 동북향으로 이어진 야산의 구름지에 4기의 무덤이 층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현재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376

번길 14(대곡동 산120-1번지)이다.

입향조인 신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사직서령 신세경의 아들이다. 그는 중종 11년(1516)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7년이 지난 중종 18년(1523)에 홍문관에 발탁되었다. 그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스승인 김식을 변호하다 탄핵되었고 이후 형조좌랑, 함경도도사를 거쳐 공조, 형조, 병조의 정랑과 지평을 지냈다가 권력층들의 눈 밖에 난 뒤 수원부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각 조의 참판을 지내고 대사헌,

19)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2쪽

2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275쪽;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 조사-』, 17-18, 32쪽.

대사간, 호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오른 후 지중추부사에 이른 다음 사직하였다. 시호는 이간공(夷簡公)이다.

묘역의 형태를 보자면 신영과 부인이었던 단양우씨의 합분이 있으나, 묘갈의 마모 상태가 매우 심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합분의 좌측으로 신도비와 망주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또한 현재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신영의 묘 아래쪽으로는 신영의 아들인 신승서(申承緒)와 그의 부인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쌍분이 조성되어 있다. 신승서는 영의정을 지낸 신흠(申欽)의 아버지이다. 그 밑으로 신승서의 5대손인 신철(申轍)과 그의 부인 경주(慶州) 이씨(李氏)의 무덤이 있다. 이들 무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신승서의 형 광서(光緒)와 부인 죽산(竹山) 안씨(安氏)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신영 신도비(申瑛神道碑)의 크기는 294×86×25cm이며 건립연대는 조선 선조 6년(1573)이고, 찬자는 성혼이다. 대리석 재질 양면비로 비석의 상단에 전서로 ‘이간공 신도비명(夷間公神道碑銘)’이라 새겨져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신도비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는 높은 편이다. 주로 신영의 업적과 가계가 기록되어 있다. 2015년 서구문화원의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에 탁본된 기록과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2005년도의 보고서보다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224×68×25cm로 2005년 당시보다 높이가 약 70이 줄었다.²¹⁾ 2005년에 측정된 신도비의 크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2022년에 측정된 신도비의 크기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05년에는 탁본 기록을 수행하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탁본 기록을 수행하면서 신도비의 명확한 길이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2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38쪽.

4) 대곡동 유물산포지²²⁾

대곡동 유물산포지는 총 6곳으로 대곡동과 마전동 사이 일대에 분포해 있다. 먼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27번지와 528-1번지, 529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여래교로 가는 길목에서 좌측으로 나가는 도로를 진입하면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 군부대에서 다시 좌측으로 걷다 보면 민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민가의 주변 지역이 바로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이다.

수습된 유물로는 백자편과 분청사기 구연부편 1점이 있다. 도기편들은 두께 5~7mm의 회청색의 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서 고판 흔적과 외면에는 침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②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69(구 지번 대곡동 570번지) 일대이다. 이곳은 군부대 우측에 보이는 민가와 그 옆에 있는 밭 일대이며 기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고려청자편과 분청사기 1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물산포지 ②에서 출토된 유물의 시대는 고려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분청사기 1편은 접시의 구연부와 동체 일부만 남은 잔편이었다. 내면과 외면에는 2~4조의 선문과 함께 초화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상감되어 있었다. 도기편들은 두께 5~7mm의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것들로서 경도가 매우 높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06-4번지 일대이다. 발견된 유물의 시대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까지이다. 이곳은 동의 경계지대로서 대곡동과 마곡동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다. 마전동 가현에서 대곡동 태현으로 넘어가는 작은 언덕을 넘고 양 갈래 길에서 우측의 소로가 존재한다. 이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약 100m 부근이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이다.

수습된 유물 중 자기류는 분청사기 저부편 1점이 수습되었고, 저부와 동체일부가 잔존한 '壽'명 청화백자편 1점이 수습되었다. 도기류는 동체편과 구연부편으로 두

22)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489-491쪽;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 『인천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3쪽-24쪽.

께 4~7mm의 경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었다.



〈사진 70〉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



〈사진 71〉 대곡동 유물산포지 ②



〈사진 72〉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55번길 6과 155번길 8(대곡동 505번지) 일대이다. 발견된 유물의 시대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발견되었다. 이곳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에서 우측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다만 현재는 유물산포지 주변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공사 등을 하여 유물산포지가 다소 훼손되었다. 발견된 유물은 기와 및 자기 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⑤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07전, 506번지 일대이다. 산포지 ①과 ④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도라지골 산의 구릉 남사면 밭 일대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곳의 지형은 특이하게 배산임수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도기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⑥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92-8번지, 490-12번지 일대이다. 장고산 남사면의 끝자락에 위치하였으며,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고 있다. 유물산포지 ⑤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수키와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사진 73〉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



〈사진 74〉 대곡동 유물산포지 ⑤



〈사진 75〉 대곡동 유물산포지 ⑥

5)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 ~ ③²³⁾

대곡동 유적추정지는 총 3곳이다. 대곡동에는 시대 미상의 유적추정지 3곳이 있다. 먼저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은 서구 대곡동 산39임, 산40임 일원이다. 장고산 북쪽 봉우리의 정상 부근으로서 정상부의 둘레를 따라서 시대를 알 수 없는 석축 시설이 확인되었다. 석축 시설 내부는 약 30평 정도로 시기나 활용도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사진 76〉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



〈사진 77〉 대곡동 유적추정지 ②



〈사진 78〉 대곡동 유적추정지 ③

대곡동 유적추정지 ②는 서구 대곡동 산35임, 산37임 일원이다. 마찬가지로 장고산의 남쪽 봉우리 정상 부근으로 추정되며, 전방의 나진하천 유역을 따라 선사시대의 고지성 집락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추정지이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③은 옛 지번으로 보면 서구 마전동 601, 609 일대이며, 현재 주소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9(마전동 999-23번지)와 당하동 1666번지 일대이다. 이곳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에서 발견된 타날문토기편의 수습지점 인근으로,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의 유물 등이 발견될 확률이 있는 지역이다.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던 구릉 북사면의 곡간부에 해당하는 지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491~492쪽.

6) 전주류씨 묘역



〈사진 79〉 전주류씨 묘역

황곡 안쪽의 너른 공터를 둘러싸고 전주류씨 묘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23-1번지(구 지번 대곡동 산 122번지)이다. 전주류씨는 조선시대의 문헌 및 자료 등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생소한 성씨이다. 묘역의 석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1970년

대 이후에 조성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묘역이 최근에 이장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공터의 입구 좌측 구릉으로는 3기의 무덤이 모여 있다.²⁴⁾

제일 위로부터 류시성(柳時成) 묘역, 류진(柳軫) 묘역, 류파(柳坡) 묘역 순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좌측으로는 류계반(柳季潘)의 망배단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류파 묘는 남아있는 묘갈명에 따르면 1657년(효종 8)에 조성된 것으로, 전체 류씨 묘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묘역 역시 옆에 서 있는 새로운 오석(烏石) 비로 미루어 볼 때 최근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골짜기 건너로 류항(柳航), 류효찬(柳孝贊), 류악(柳渥), 류계생(柳啓生)의 묘역이 시계방향으로 늘어서 있다.²⁵⁾

7) 밀양당씨 정열비

정열비는 일반적으로 열녀비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열녀란 유교 사상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조선 중기 이후 위난(危難)을 당해 목숨으로 정절을 지켰거나, 오랜 세월 동안 수절한 부녀자를 일컫는 것으로 관에서는 이를 후세에 기리

24)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3쪽.

25)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 34쪽.

기 위해 마을 입구에 열녀비 또는 사당을 짓게 하여 그 뜻을 이어 나갔다.



〈사진 80〉 밀양당씨 정열비 비각



〈사진 81〉 밀양당씨 정열비

밀양당씨(1810~1895)는 반남박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당 씨의 나이가 48세 되던 1857년(철종 8)에 남편 박종주(朴宗柱)가 중병으로 쓰러졌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병했으나 결국 운명하였다. 그러자 당 씨가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입으로 흘려 넣어 남편을 회생케 했다고 한다. 1926년에 김포 군수 조준구가 이를 기리어 마을 입구에 정열비와 사당을 세웠다.²⁶⁾

현재 비석을 둘러싼 비각의 입구 부분은 막혀 있고 민가 옆의 산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76번길 29-2 건물의 측면(대곡동 279-2번지)에 위치해 있다.

2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41쪽.

8) 김중환의 묘

김중환(金重煥, 1863~1932)은 1863년(철종 14)에 출생하였다. 본관은 풍산김씨(豐山金氏)이다. 그는 1889년(고종 26)에 문과에 합격한 뒤 승정원 가주서(假注書)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1891년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면서 사간원 정언(正言)과 내부협판(內部協辦) 등을 역임하였다.²⁷⁾

김중환은 사헌주 지평, 내부참서관(內部參書官), 내부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지방제도조사위원과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 기사원(記事員), 중추원의관등을 순차로 겸임하였다. 그 후 1899년 이후에는 탁지부의 문부조사위원(文簿調査委員)과 지계아문(地契衙門) 부총재 등을 역임하였다.²⁸⁾

을사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립보성학교장, 한남학교장, 동명학교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국가적 위기의 타계책을 교육이라고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나 『大韓帝國官員履歷書(대한제국관원 이력서)』를 살펴보면 다른 관원들에 비하여 교장 직책을 유독 많이 맡았던 것이 눈에 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아 겸직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중환은 1907년에 경상북도 선유사에 임명되어 교육계를 잠시 떠나있었다. 그러던 중 학교의 보급을 중요시하게 되어 돈의학회를 세웠고, 또한 보인학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국민교육에 대한 그의 시각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김중환의 묘는 현재 대곡동의 태정마을 동쪽으로 흐르는 개울에서 약 500m 가면 보이는 쇠재산에 위치해 있다. 묘역은 쇠재산 남쪽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김중환의 묘가 모셔져 있다. 다만 현재는 교량 및 산 하단의 공사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다. 공사가 끝난 후 쇠재산 산책로와 그 주변 일대의 통행이 허가되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554쪽.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김중환」

9) 두밀마을 은행나무



〈사진 82〉 두밀마을 은행나무

대곡동 두밀마을 은행나무는 두밀마을이 중심에 있는 분틀메 남쪽 아랫말,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32(대곡동 24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82년 10월 15일에 인천광역시 보호수 4-8-1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하나의 거목이 현재는 세 갈래로 갈리어 자라난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14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제일 굵은 북쪽의 줄기가 5.2m, 동쪽 줄기가 1.1m, 남서쪽 줄기가 2.5m라 하였다. 자료의 시기와 현재 2025년 10월경의 상태를 비교하

자면 큰 차이는 없다. 성장이 더딘 것은 나무를 심을 때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뿌리 위 1m 지점의 줄기가 흠에 제대로 덮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령은 약 500년이며, 높이는 20m, 둘레는 6m이다.

이 은행나무는 두밀마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무이다. 두밀마을에는 고승이 땅에 지팡이를 꽂자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전설에 나오는 은행나무가 바로 두밀마을 은행나무이다. 그리하여 과거 두밀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가현산 삼형제 바위를 당산할아버지(큰당), 두밀마을 은행나무를 당산할머니(작은당)으로 모시고 당제를 지내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라졌다.²⁹⁾

2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12~116쪽.

10) 두밀마을 느티나무



〈사진 83〉 두밀마을 느티나무

대곡동 두밀마을 느티나무는 비지정 보호수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 91번길 23(대곡동 261-2번지), 두밀마을의 작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옆에는 농가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단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은 약 200년이며 높이는 15m이며, 둘레는 3.5m이다.³⁰⁾

11) 두밀마을 팔배나무

대곡동 두밀마을 팔배나무는 길가에 위치한 기와집 뒤쪽 산 능선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팔배나무는 두밀마을에 살고 있던 박남박씨 선대에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비지정 보호수이며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 91번길 28(대곡동 264번지)이다. 수령은 약 200년이며, 높이 15m, 둘레 2.4m이다. 현재 팔배나무 앞 기와집은 주인이 살고 있지 않아 팔배나무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기와집 사잇길로 들어가서 약 15m 옆에 쓰러진 나무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³¹⁾



〈사진 84〉 두밀마을 팔배나무

3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18쪽.

3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21쪽.

12) 두밀마을 향나무

두밀마을 향나무는 비지정 보호수로서 능선의 끝자락인 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 45-6(대곡동 246-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향나무 바로 밑에 ‘경기도김포군검단면대곡리두밀부락’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진 마을 표지석이 존재한다. 주변 지역에는 나진포천으로 향하는 지방2급 하천인 대곡천이 흐르고 있다. 나무의 수령은 미상이며 높이 7m, 둘레는 1m이다.³²⁾



〈사진 85〉 두밀마을 향나무



〈사진 86〉 향나무 아래 마을 표지석

13) 황곡 느티나무

대곡동의 황곡 지역은 과거 가현산 능선에 존재하는 큰 골짜기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황곡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권력층 무덤인 고인돌이 수십 기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을의 형성 시기가 오래된 지역임에는 틀림 없다. 현재 황곡 입구에 위치한 느티나무 2수는 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측백나무가 존재한다. 이들 나무의 존재를 볼 때 이 마을

3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28쪽.



〈사진 87〉 황곡 느티나무

의 지주적 역할과 역사의 흔적임에는 틀림없다.³³⁾ 느티나무 인근에는 대곡동 고인돌(시 기념물 제33호)과 평산신씨 증중묘역(시 기념물 제61호)이 있어, 이 근방은 서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술연구를 위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대곡동 황곡 느티나무는 가현산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언덕 끝, 도로가 난 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무의 보호를 위해 금속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4-8-2호로 1982년 10월 15일에 지정되었으며,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370(대곡동 136-1번지)이다. 수령은 황곡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500년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높이는 20m, 둘레 6m이다.³⁴⁾

14)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

대곡동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는 마을에서 황곡골로 가는 길 입구, 가현산의 능선 쪽 바로 앞쪽에 있다. 능선 사이에 골짜기를 이룬 곳에 있으며, 주소는 대곡로 360번지이다. 주변에는 단층 민가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굿당 등이 존재한다. 현재 동 보호수 4-8-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은 약 200년이며 높이 23m, 둘레 3m이다.³⁵⁾



〈사진 88〉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

33)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60-61쪽.

3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28쪽

3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32쪽.

15) 황곡 측백나무



〈사진 89〉 황곡 측백나무

대곡동 황곡 측백나무는 대곡로 339번길 6-4에 있다. 황곡에서 황곡골 방향으로 가면 왼쪽에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서면 가운데가 벌어지고, 양 나뭇가지가 독특하게 솟은 모양의 측백나무가 보인다. 비지정 보호수이며, 수령은 약 300년이며, 높이 12m, 둘레 2.8m이다.³⁶⁾

대곡동 황곡 측백나무는 조선 중기 인물인 신흘(申欽)과 관련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신흘은 평산을 본관으로 하여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평산신씨는 13대조에 이르러 이 측백나무 옆에 살기 시작하였는데, 14대조였던 할머니가 신흘에게 아들의 벼슬을 부탁하러 한양을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집의 방향을 한양 쪽인 동향이 싫어 서남향으로 바꾸어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³⁷⁾

3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앞의 책, 138~140쪽.

37)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 블로그 (<https://icseogu.tistory.com/1315>) - "인천서구 향토역사순례 32탄 〈황골마을 측백(側柏) 나무를 찾아서〉"

16) 황곡 감지정(坎止亭) 터

황곡 감지정은 검단과 김포 사이에 있는 가현산에 있었던 곳으로 인조시기 영의정을 지냈던 신희가 이곳에서 거닐었다고 한다. 신희는 계축옥사 당시 김포 상두산(象頭山) 근방으로 쫓겨났는데, 이때 가현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덩불과 돌길에 막혀 웅덩이를 이루던 곳에 정착하였다. 그는 도끼로 덩불을 걷고, 물길의 흐름을 바꾼 후에 돌을 쌓아 그 위에 한 칸의 띠집을 짓고, 내리닫는 물을 모아 연못 두 개를 만들었다.³⁸⁾

한 칸의 초가에는 감지와(坎止窩)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감지(坎止)는 물이 구덩이를 만나서 멈춘 것을 뜻한다. 그가 지은 감지와명(坎止窩銘)을 보면 당시의 소회를 알 수 있다.

‘時止而止(시지이지) 上不及仲尼(상불내중니) 援之而止(원지이지) 下炸於士師(불작어사사) 坎而後止(감이후지) 其行恥也(기행치야) 維心之亨(유심지형) 其素履也(기소이야) 止於所止(지어소지) 竊庶幾樂天知命之君子(절서기락천지명지군자)’

‘그칠 때 그친 것은 위로 중니만 못하고, 붙들어 그친 것은 아래로 사사(士師)에게 부끄럽다. 구덩이에 빠지고야 멈췄으니 행한 일이 부끄럽지만 마음만은 형통하여 평소와 다름없네. 그칠 곳에서 그쳐 낙천지명(樂天知命) 군자 되리라’

이러한 신희의 감지와명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감이후지(坎而後止)이다. 감이후지는 구덩이에 빠지고야 멈춘다는 뜻으로서 구덩이를 만나면 물이 넘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이다.

현재는 감지와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희와 그 후세가 남긴 사료

38)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조선왕조실록 실록위키(dh.aks.ac.kr) - 「신희」

속에서 감지와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이곳은 ‘감지와’로 불리었는데, ‘와’는 웅크려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감지와’가 ‘감지정’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는 신희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감지정에 대한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나타내는 사료가 신희의 큰아들 신익성이 지은 ‘감지정기’인데, ‘감지와’를 ‘감지정’으로 나타내고 있다.³⁹⁾

17) 하동정씨 사당



〈사진 90〉 하동정씨 사당

하동정씨 사당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03번지에 위치해 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정인지는 태조 5년(1396)에 태어나 성종 9년(1478)에 사망하였다. 정인지의 자는 백휴(白晷)이고 호는 학역재(學易齋)이다. 본관은 하동(河東)이며, 석성현감을 지낸 정흥인

(鄭興仁)의 아들이며 권우(權遇)의 문인이다. 태종 11년(1411)에 생원이 되고 태종 14년(1414)에 식년 문과에 삭원으로 급제하여 예빈사 주부(禮賓寺 主簿), 사헌부 감찰, 예조좌랑을 지내고 집현전 학사와 이후에 집현전 응교, 직제학을 거치고 이후 세종 9년(1427)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서 장원을 하게 된다. 이후 좌필선(左弼善)과 부제학(副提學) 및 시강관을 겸직하였다. 세종 12년(1430)에는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가 되었다. 그 후 세종 14년(1432)에 예문관제학과 동지춘추관사가 되었고 이듬해 인수부윤(仁壽府尹)과 이조참판을 거쳐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세종 18년(1436) 부친상을 당하여 상을 치르고 세종 21년(1439) 형조참판에 제수되어 같은 해 판서로 승진하여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오게 된다. 세종

39) 『상촌고(象村稿)』 권(卷)30 감지와명(坎止窩銘).

24년(1445)에는 우참찬을 거쳐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한다. 그 후에는 공조판서 좌참판을 지내고 문종 2년(1452)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 다음 해에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참여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공을 세워 우의정에 오르게 된다. 정난에 참여한 공으로 1등으로 책록되어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에 책봉되고, 이후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즉위하자 세조 1년(1455)에 영의정(領議政)이 되고 이후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⁴⁰⁾

하동정씨 사당은 하동정씨 문성공파 정인지와 그의 아들인 정현조를 모셨고, 10월 15일이 되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후손들이 마을을 떠나고 수원에 새로운 사당이 지어지면서 사당 제사는 지내지 않았고, 지금은 폐허로 변한 상태이다. 태정마을에 자리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사당은 50여 년 전에 지은 것이다. 사당은 1칸이며, 문은 남향을 향하고 있어 마을에서 사당을 보면 뒷벽 모습만 보인다. 그래서 벽면 한쪽에 툇마루를 설치해 마을 전경이 보이도록 했다. 10월 제사에는 20명이 참가하다가 후에 7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고, 정순태 옹이 줄곧 제물을 준비해 시제를 챙겼다. 사당에는 시제를 위한 위토가 없어 제사에 따른 경비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은 삼색 과일, 인절미, 편, 약주, 송어 등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송어를 조기보다 높은 물고기로 치며, 송어가 없는 경우 조기를 올렸다. 대부도, 영흥도 등지에서는 다른 송어를 찌서 제상에 올리는 반면, 여기에서는 생 송어를 익혀서 올렸다.⁴¹⁾

현재는 방치되어 있으며, 민가의 밭 뒤쪽 도랑을 타고 왼편으로 가면 보이는 벽돌구조의 건물이 바로 하동정씨 사당이다.

4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앞의 책, 216~217쪽.

4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앞의 책, 146쪽.

|참고문헌|

고문헌

- 『각사등록(各司臚錄)』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지(京畿誌)』
『고종실록(高宗實錄)』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대한제국직원록(大韓帝國職員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호구총수(戶口總數)』

논저

- 김영순·박한준 외, 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광역시사』 제1권 자연환경과 지리.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보고서

-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연구구, 옹진군』.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 『인천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
한국문화재보존재단,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시도시개발본부, 2003.
『인천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 보고서』.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 블로그 (<https://icseogu.tistory.com/131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조선왕조실록 실록위키 (dh.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X

/

부록



文
化
中
心
遺
產



| 표 목차 |

〈표 1〉 2013년 기준 검단 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16
〈표 2〉 고성이씨 가계도	96
〈표 3〉 원당동 1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127
〈표 4〉 불로동 1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128
〈표 5〉 불로동 2호 고인돌 크기와 무게	128
〈표 6〉 대곡리 지석묘군 B군 현황	143
〈표 7〉 반남박씨 묘주 및 묘갈 형태	146

| 사진 목차 |

〈사진 1〉 한백륜 묘역	32
〈사진 2〉 망해사지의 현재 모습 (2025년)	34
〈사진 3〉 마전동 굴참나무 ①	35
〈사진 4〉 마전동 굴참나무 ②	35
〈사진 5〉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소	36
〈사진 6〉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역	39
〈사진 7〉 가현산 옥돌 광산터 (추정)	40
〈사진 8〉 검단1지구 마전6호 어린이공원	41
〈사진 9〉 마전동 유물산포지 (1)	42
〈사진 10〉 마전동 유물산포지 (2)	42
〈사진 11〉 악천사지 터	50
(출처: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수조사 -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옹진군』, 59쪽.)	
〈사진 12〉 묘각사 느티나무 ①	52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13〉 묘각사 느티나무 ① (2025년 11월)	52
〈사진 14〉 묘각사 느티나무 ② (2025년 3월)	53
〈사진 15〉 묘각사 느티나무 ② (2025년 11월)	53
〈사진 16〉 묘각사 느티나무 ③	54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17〉 소실된 나무 자리 (전각 앞)	54
〈사진 18〉 조사 전 전경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55
〈사진 19〉 Tr. 3 전경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55
〈사진 20〉 Tr. 2 북벽 토층상태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55
〈사진 21〉 Tr. 2 전경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55
〈사진 22〉 백석산 봉수대 터	64
〈사진 23〉 백석산 바위 (1)	66
〈사진 24〉 백석산 바위 (2)	66
〈사진 25〉 오류동 느티나무	68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29쪽.)	
〈사진 26〉 오류동 당산 소나무	69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36쪽.)	
〈사진 27〉 오류동 당산 소나무	69
〈사진 28〉 소왕 조구내리	77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97쪽.)	
〈사진 29〉 대왕	77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95쪽.)	
〈사진 30〉 1950년대 안동포 고깃배 모습 (김병학님 제공)	80
〈사진 31〉 1960년대 초 안동포 염전 (유춘길님 제공)	81
〈사진 32〉 안동포 염전 터	83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사진 33〉 안동포 당제 향나무 소나무	85
〈사진 34〉 고성이씨 묘역	95
〈사진 35〉 당하동 광명마을 느티나무	98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36〉 광명마을 느티나무 표시석	98
〈사진 37〉 당하동 매밭 느티나무	10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38〉 당하동 죽저마을 측백나무	101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39〉 당하동 죽저마을 향나무	102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진 40〉 김안정 묘	110
〈사진 41〉 의령남씨 종중묘역 전경	111
〈사진 42〉 남정화 묘	112
〈사진 43〉 남정 묘	113
〈사진 44〉 남두장 묘	115
〈사진 45〉 원당동 유적 전경	116
〈사진 46〉 원당동 유적 전경	116
〈사진 47〉 1차 조사, 조사 전 전경(북-남)	117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0쪽.)	
〈사진 48〉 1차 조사, 조사 전 전경(남-북)	117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0쪽.)	
〈사진 49〉 2호 수혈 출토 공렬문토기	118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6쪽.)	
〈사진 50〉 원당동 유적 원경(동에서)	119
(출처: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본문-』.)	
〈사진 51〉 원당동 유적 원경(북동에서)	119
(출처: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본문-』.)	
〈사진 52〉 불로동 1호 고인돌	126
〈사진 53〉 불로동 2호 고인돌	126
〈사진 54〉 불로동 1호, 2호 고인돌	126
〈사진 55〉 마산마을 느티나무 전경	129
〈사진 56〉 마산마을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석축(돌단)	129
〈사진 57〉 당산 음나무 전경	130
〈사진 58〉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모습	130
〈사진 59〉 불로동 당산 참나무	131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167쪽.)	

〈사진 60〉 불로동 아랫마을 느티나무	132
〈사진 61〉 청동기 곁아가리토기	133
〈사진 62〉 청동기 구멍무늬토기, 향아리모양토기	133
〈사진 63〉 고려시대 청자주자, 청자잔과 잔받침, 청자접시	133
〈사진 64〉 고려시대 '김포관가'가 새겨진 암키와	135
〈사진 65〉 조선시대 분청사기 향아리	135
〈사진 66〉 대곡동 E군 고인돌 1호	144
〈사진 67〉 대곡동 E군 고인돌 4호	144
〈사진 68〉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145
〈사진 69〉 평산신씨 종중묘역	147
〈사진 70〉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1〉 대곡동 유물산포지 ②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2〉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3〉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4〉 대곡동 유물산포지 ⑤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5〉 대곡동 유물산포지 ⑥	150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6〉 대곡동 유물추정지 ①	151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7〉 대곡동 유적추정지 ②	151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8〉 대곡동 유적추정지 ③	151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상)』.)	
〈사진 79〉 전주류씨 묘역	152

〈사진 80〉 밀양당씨 정열비 비각	153
〈사진 81〉 밀양당씨 정열비	153
〈사진 82〉 대곡동 두밀마을 은행나무	155
〈사진 83〉 두밀마을 느티나무	156
〈사진 84〉 대곡동 두밀마을 팔배나무	156
〈사진 85〉 두밀마을 향나무	157
〈사진 86〉 향나무 아래 마을 표지석	157
〈사진 87〉 황곡 느티나무	158
〈사진 88〉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	158
〈사진 89〉 황곡 측백나무	159
〈사진 90〉 하동정씨 사당	161

| 지도 목차 |

〈지도 1〉 『대동여지도』의 검단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
〈지도 2〉 마전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32
〈지도 3〉 금곡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49
〈지도 4〉 오류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62
〈지도 5〉 『대동여지도』의 백석산 봉수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4
〈지도 6〉 왕길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79
〈지도 7〉 당하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95
〈지도 8〉 원당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109
〈지도 9〉 불로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125
〈지도 10〉 대곡동 문화유산 분포 (출처: 네이버 지도)	142

| 주요 고문헌 설명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편찬된 『세종장헌대왕실록』에 부록으로 수록된 지리지이다. 1424년 11월에 세종이 변계량(卞季良)에게 지지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전국 지리지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425년에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편찬되었으며 나머지 도의 지리지가 이어서 만들어졌다. 1432년에 이러한 지리지들을 재편집하여 전국 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로 완성되었다. 이후 이 지리지는 1452년에 『세종실록』 163권을 편찬할 때 오례의(五禮儀), 악보(樂譜), 칠정산(七政算)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세종실록지리지』이다.¹⁾ 당시 검단이 속했던 김포의 연혁과 백석산 봉수 등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성종 16)년에 완성된 조선시대 성문 법전이다.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다. 구성은 「이전(史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으로 되어있다. 각 전(典)마다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²⁾ 조선 전기에 면리제(面里制)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만 면리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이라, 당시 검단리는 김포현 아래에 있었다.

『동국여지지(東國餘地志)』

1656년 실학자 유흥원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로 9권 10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왜란과 호란 이후 최초로 개인이 만든 전국지리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지리적 고증을 통해 밝힌 역사지리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³⁾ 김포가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연혁과 마전동의 망해암(望海庵)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db.snu.ac.kr/book/view.do>)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해제

2) 우리역사넷(<https://contents.history.go.kr/front>) - 『경국대전(經國大典)』 해제

3) 한국고전번역원DB(<https://db.itkc.or.kr>) - 『동국여지지(東國餘地志)』 해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전기에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관찬지리지로 5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으나 성종 16년에 다시 수정을 더하게 하였고, 17년에 55권으로 완성되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연산군 때 잘못된 곳을 수정 및 보충하였다. 연산군을 증중반정으로 몰아낸 후 왕위에 오른 중종은 전대의 편찬 간행 사업을 계승하였다. 그중 하나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이었다.⁴⁾

『호구총수(戶口總數)』

조선시대의 호구통계기록이다. 서문 및 발문 등이 없어 그 편찬 동기, 편찬연대, 편찬자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내용을 통해 1789년(正祖 13)에 편집 및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및 각 도의 호수와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총 9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구총수』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전국의 호구 수를 남녀 숫자까지 포함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호구 변화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리명(坊里名)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⁵⁾

『경기지(京畿誌)』

경기도 33개 군과 영종진의 읍지를 4책으로 합쳐 편찬한 책이다. 편찬연도는 1842년(현종 8)으로 보인다. 읍지의 체제는 일반적인 읍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각 읍지마다 상세하거나 소략한 등의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읍지를 무분별하게 베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책 말미에 김포군읍지가 수록되어 있다.⁶⁾

『경기읍지(京畿邑誌)』

경기도 35개 군의 읍지를 합쳐 편찬한 필사본으로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시기는 1871년(고종 8)이다. 『경기읍지』에 수록된 읍지들은 각 군(郡)에서 만들어져 각 읍지의 끝에 지방관의 수결이 확인된다. 1책 26면에 김포군읍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방리, 도로, 건치연혁, 군명, 형승, 성지, 관원, 산천, 성씨, 풍속 등이다.⁷⁾

4) 한국고전번역원DB(<https://db.itkc.or.kr>)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해제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db.snu.ac.kr/book/view.do>) - 『호구총수(戶口總數)』 해제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db.snu.ac.kr/book/view.do>) - 『경기지(京畿誌)』 해제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db.snu.ac.kr/book/view.do>) - 『경기읍지(京畿邑誌)』 해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

1899년(광무 3) 전국에 읍지를 편찬해 올리라고 명하여 만들어진 읍지 중 김포군에 대한 것이다.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색 지도가 들어가 있다. 이 읍지는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경기지(京畿誌)』에 있는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를 바탕으로 한 필사본이다. 다만 수전(水田), 조적(糶糶),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역(均役), 봉름(俸廩), 군병(軍兵), 사환미(社還米)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⁸⁾

『김포읍지(金浦邑誌)』

표제는 ‘김포읍지(金浦邑誌)’이며 광무 3년(1899) 10월에 발간되었다. 권수제는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이다. 건치연혁조에는 인조의 아버지로 추존된 원종(元宗)과 그의 비 인현왕후(仁獻王后)의 능인 장릉(章陵)이 1626년(인조 4)에 김포현 읍치로 이건되면서 읍치를 옮기고 군으로 승격된 사실을 실고 있다. 군내면(郡內面), 석한면(石閑面), 마산면(馬山面), 검단면(黔丹面), 노장면(蘆長面), 고현내면(古縣內面), 고란대면(高蘭台面), 임촌면(林村面) 등 8개 면의 소속 동리 43개를 수록하였다.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중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를 저본으로 하여 1871년(고종 8)에 제작된 『경기읍지(京畿邑誌)』 중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에 편찬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에 비해 다소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⁹⁾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1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식민통 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조선의 지명 및 지리지(地誌) 관련 자료이다. 총 5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어 땅 이름이 한문과 언문(한글)로 표기되어 있다.¹⁰⁾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db.snu.ac.kr/book/view.do>) -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 해제

9)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 『김포읍지(金浦邑誌)』 해제

10) 신중원·김홍삼, 2008.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해제-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 : 《朝鮮地誌資料》京畿道篇』, 경기문화재단.

| 서곶의 문화유산 주소 목록 |

동	문화유산	주소
마전동	한백륜 묘역	마전동 산120-4번지
	망해사지 (소실)	마전동 산49번지
	능내마을 굴참나무 ①, ②	마전동 산7-2번지
	서하 임춘(西河 林椿) 묘소	마전동 산59-1번지
	가현산 옥돌 광산터 (소실)	마전동 산39-5번지 (인천 서구 가현산로 65 건너편 산지 일대)
	검단유적 1지구 2구역	마전동 929-1번지 (검단1지구 마전6호 어린이공원)
	마전동 유물산포지	가현산로 72-10 (마전동 26-8번지), 마전동 26-10번지 일대
금곡동	약천사지 (소실)	금곡동 산215-5번지 일원
	묘각사 느티나무 ①, ②, ③ (느티나무 ①, ③ 소실)	봉수대로 1636-181 (금곡동 565-3 / 구: 금곡동 43)
	검단유적 1지구 1구역	금곡동 727-8번지(현 금곡 어린이공원)
오류동	백석산 봉수대 터 (소실)	오류동 639번지
	백석산 바위	오류동 산56-8번지 (백석산 정상)
	오류동 느티나무	백석산로54번안길 18 (오류동 548-3번지)
	오류동 당산 소나무	오류동 산27-1번지
왕길동	안동포 터	왕길동 164-111번지 (현 안동포사거리 부근)
	왕길동 염전 터	왕길동 160번지 일대
	안동포 당제 향나무 소나무	원당대로301번길 24-6 (왕길동 595-5번지) 동아연립 C동 3호 라인 옆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당하동 산164번지
	광명마을 느티나무	원당대로 976 (당하동 351번지)
	매밭 느티나무 (소실)	이음3로 149 (당하동 1246-8번지 / 구: 당하동 305번지)
	죽저마을 측백나무 (소실)	당하동 71-7번지
	죽저마을 향나무 (소실)	당하동 231-3번지
원당동	김안정 묘·출토 묘비	원당대로839번길 43 (원당동 810-15번지)
	의령남씨 종중묘역	원당동 544-18번지 (구: 원당동 산82-1번지)
	원당동유적	유적 ①-3구역 : 원당대로 865 (원당동 824-10번지 / 구: 원당동 산130번지) 일원 유적 ①-4구역 : 원당동 산118번지 일원 유적 ② : 정확한 주소 특정 어려움 유적 ③ : 서로3로 255 (원당동 987-1번지 / 구: 원당동 산19-3번지) 일원

X. 부록

동	문화유산	주소
불로동	불로동 근린 공원내 고인돌	불로동 965-1번지
	마산마을 은행나무	검단로744번3길 8 (불로동 793-1번지)
	불로동 당산 음나무	검단로777번길 22 (불로동 770-2번지)
	불로동 당산 참나무 (소실)	불로동 산183번지
	아랫마을 느티나무	검단로763번안길 21 (불로동 767-13번지 / 구: 불로동 산175-2번지)
	불로동 유물산포지	불로동 537-1번지, 547-4번지, 547-11번지 일대
대곡동	검단 대곡동 지식묘군	대곡동 147-3번지 (구: 대곡동 산123-1번지)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대곡동 213-9번지 (구: 대곡동 산151-1) 및 대곡로276번길 13(대곡동 209-5번지, 구 산152번지) 일원
	평산신씨 종중묘역	대곡로376번길 14 (대곡동 산120-1번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⑥	① 대곡동 527, 528-1, 529번지 일대 ② 대곡동 569번지 (구: 대곡동 570번지) 일대 ③ 대곡동 606-4번지 일대 ④ 대곡로155번길 6, 8 (대곡동 505번지) 일대 ⑤ 대곡동 507, 506번지 일대 ⑥ 대곡동 492-8, 490-12번지 일대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③	① 대곡동 산39번지, 산40번지 일원 ② 대곡동 산35번지, 산37번지 일원 ③ 완정로34번길 9 (마전동 999-23번지 / 구: 마전동 601번지), 당하동 1116번지 (구: 마전동 609번지) 일원
	전주류씨 묘역	대곡동 123-1번지 (구: 대곡동 산122번지)
	밀양당씨 정열비	대곡로276번길 29-2 건물 측면 (대곡동 279-2번지)
	하동정씨 사당	대곡동 503번지
	김중환의 묘	대곡동 382-8번지 일원
	두밀마을 은행나무	대곡로 232 (대곡동 249-3번지)
	두밀마을 느티나무	두밀로91번길 23 (대곡동 261-2번지)
	두밀마을 팔배나무	두밀로91번길 28 (대곡동 264번지)
	두밀마을 향나무	두밀로 45-6 (대곡동 246-6번지)
	황곡 느티나무	대곡로 370 (대곡동 136-1번지)
	황곡 삼거리 느티나무	대곡로 360 (대곡동 141번지)
황곡 측백나무	대곡로339번길 6-4 (대곡동 177-번지)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검단편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인	정근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기획총괄	서덕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기획운영	임혜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문화경영팀 팀장) 원서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서구학연구팀 사원)
집필	김영준 (인하대학교 박사) 김영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원) 김자영 (인하대학교) 이라헬 (인하대학교)
자문위원	조승원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부원장)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소장)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소장)

도움주신 분

- 자료제공
국가유산진흥원 / 국가유산청 / 인하대학교박물관 / 중부고고학연구소
- 인터뷰
양이석·양승태 (가현산 옥돌 광산터)
이승호(오류왕길동 주민자치위원장), 이○○ (백석산 바위)
임종상 (서하 임춘 묘소)

인쇄 원문사 (연락처)

ISBN 979-11-996655-0-7

ISBN 979-11-996655-1-4 (세트)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